

제3회

아프리카미래학회/아프리카미래협회 공동추계 학술대회

주제: 코로나이후 아프리카 경제 전망

일정: 2021년 6월 19일 01:30
오후(대한민국: 서울 시간)

|| 일시: 2021년 06월 19일(토) 14:00-17:00

|| 장소: 구글(온-오프라인 통합방식)

|| 주최: 아프리카미래학회/아프리카미래협회

《2021년 아프리카미래학회 학술대회》

「제1부:2021년 아프리카미래학회 학술대회」

주제: COVID-19와 아프리카 경제 전망

일시: 2021년 06월 19일(토) 14:00-17:00

장소: 구글(온-오프라인 통합방식)

참가: 회원

주최: 아프리카미래학회/아프리카미래협회

○ 학술대회 프로그램

개 회 식	
사회: 손동신(백석대학교)	
14:00-14:20	개회기도: 신인호 아프리카미래협회 부회장(전 토고 선교사) 개회사: 변순복 아프리카미래학회 자문위원(백석대학교)
주제 발표	
14:25-14:55	‘COVID-19시대의 아프리카 동향’ 주제발표: 장훈태(백석대학교)
사회: 임기대(아프리카미래학회 부회장: 부산외국어대학교)	
<제1세션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경제 전망>	
14:55-15:20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경제 전망’ 발표: 이진상교수(뉴욕주립대학교/ 전 한국아프리카학회 회장)
사회: 손동신(백석대학교)	
<제2세션 아프리카의 국제정치와 선교>	
15:25-16:50	‘아프리카 사헬(Sahel)지대의 문제 원인과 분쟁의 전망’ 발표: 임기대(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의 대 아프리카 코로나 외교관점에서’ 발표: 김윤희박사(숙명여자대학교)
	‘코로나시대 탄자니아 선교현지인 중심으로 -마라나타 리스천센터 사례 발표’ 발표: 데보라(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16:50-17:00	‘종합토론’ 사회자 : 손동신

《2021년 아프리카미래학회 학술대회》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 경제 전망

<목 차>

주제발표: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쟁점과 선교 전망
장훈태교수(백석대학교/아프리카미래학회 회장)

<제1세션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경제 전망 >

I.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경제 전망.....이진상교수(뉴욕주립대학교
/전 한국아프리카학회 회장)

<제2세션 아프리카의 국제정치와 선교>

I. 아프리카 사헬(Sahel)지대의 문제 원인과 분쟁의 전망
.....임기대(부산외국어대학교)

II. 중국의 대 아프리카 코로나 외교관점에서.....김윤희박사(숙명여자대학교)

III. 코로나시대 탄자니아 선교현지인 중심으로-마라나타 리스천센터 사례 발표.....데보
라(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제3회 아프리카미래학회 학술대회를 축하 드립니다.

변순복(백석대학교 구약학/ 아프리카미래학회 자문위원)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선교 활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코로나 19는 학문적 멈춤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라 하겠습니다.

역사의 승자 주변에는 바다가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19라는 큰 바다가 어떠한 승자를 남겨 둔 것도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바다는 민족과 국가의 성쇠를 좌우했습니다. 발견과 혁신의 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남용하고 주저 없이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들였습니다. 바다는 인간이 버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정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불양수(海不讓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바다는 전쟁부터 발견, 혁신이기도 하지만 신의 심판까지, 민족,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삶을 투영된 바다의 역사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사상과 종교라는 펜의 힘도 바다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배가 없고, 지중해 항구들 사이에서 상품과 메시지를 전달하던 상인이 없었다면 유대인은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파괴된 뒤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기독교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내륙지역인 일 드 프랑스와 독일에 앞서 브리튼(영국)과 아일랜드 해안가에 먼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슬람교 역시 지중해와 페르시아만, 인도양을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바다는 중요한 곳이지만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이 분노를 표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시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목숨이 오가는 치명적 사고로 변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수많은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폭풍과 난파, 해적질이 일어났습니다. 항구로는 나쁜 소식과 전염병, 적군이 닥쳤습니다.

지금, 지구는 위험합니다. 역설적으로 인류에게 필요불가결한 발견과 혁신이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역동적인 문명일수록 바다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수록 우리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눔을 위해 대면을 해야 합니다. 19세기 기근과 혼란을 피해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독일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따라 사회의 활력도 움직였습니다. 20세기 중반 컨테이너 혁명과 일본과 한국의 부상에 힘입어 세계무역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1세기 는 문명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올라 있습니다.

인류문화의 주요한 원천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대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유로운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접근을 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문명사적으로 아프리카는 우리의 미래로 보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프리카로 집중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아프리카에서 불거질 전망입니다. 아프리카를 시야의 중심에 놓고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뒤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프리카미래학회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미래를 펼쳐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 여깁니다. 오늘 코로나 19이후 아프리카의 경제전망을 통하여 교회와 국가가 새로운 관점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두 분의 경제분야 발표와 사헬지역 이남의 불안요인,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 탄자니아 마라나타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은 아프리카라는 커다란 바다의 정보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탐사의 길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제3회 아프리카미래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학회, 학술대회의 발제자를 비롯하여 참가자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2021년6월18일

<제1세션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경제 전망 >

1.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쟁점과 선교 전망.....
장훈태(백석대학교)
2. 코로나이후 아프리카 경제 전망.....
이진상교수(뉴욕주립대학교/전 한국아프리카학회 회장)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쟁점과 선교 전망

장훈태(백석대학교)

I. 들어가는 말

21세기 들어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자원개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제발전 대세론과 석유 시대의 종언, 탈핵, 원자력, 전기차,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으며, 유럽, 미국과 중동, 아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프리카로의 에너지 패권이동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류의 발전 과정을 보면,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사람의 힘, 동물 특히 소, 말, 낙타, 당나귀를 활용한 운송수단의 발명은 세계 어느 나라가 거의 비슷한 편이다. 문명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나무를 이용하여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어 강을 건너고 물품들을 운송했다. 자연환경이 뛰어난 장소는 생산성이 높을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이 가능했다. 즉 에너지 사용과 이에 따른 비용도 경제발전을 좌우하게 되었다.

인간의 문명과 발전은 강을 기점으로 발전해왔다. 에덴의 정원을 기점으로 하여 비옥하던 모헨조다로(Mohenjo-Daro, *مونئن جو دڑو*), 인근의 강과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허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북아프리카(중동)의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광대한 이집트 등 강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발달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제 상황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적용했던 상품과 무역체제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의 경제문화도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가 공산품 위주의 실물경제로 형성되는 단계를 넘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아프리카경제연합과 금융시장에 의해 이제 경제문제에서 정치문제로 이동하는 중이다. 아프리카 문화의 가치 역시 눈에 띄지 않게 변화하고 있지만, 독특한 문화형태는 지속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경제문화는 다른 보이지 않는 것의 경제보다 덜 부각되고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왜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한가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니든, 아프리카의 가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가난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아프리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프리카를 돕겠다고 손을 내미는 국가, NGO, 개인은 넘쳐난다.¹⁾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이 왜 아직까지 가난하냐고 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자본주의 시장원리가 자리 잡은 지도 반세기가 지났다. 그 동안 아프리카 대륙은 정치적 불안도 많이 해소되었고, 1960년대 이후 식민지 국가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왜 부강한 나라가 없고 다른 대륙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아프리카 대륙의 다양한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아프리카경제연합이 창설되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 19가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전망에 대하여 담론을 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소비자, 사업가, NGO, 정부 기관, 정부 모두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아프리카를 기회²⁾의 땅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

1) 윤영준, 『아프리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난-아프리카는 왜 아직 가난한가?』 (서울: 지식과 감성, 2020), 4-5.

2) Vijay Mahajan, Africa Rising, 이순주 옮김 『아프리카 파워』 (서울: 에이지, 2010), 15-26.

아니라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 조직화, 인프라, 청소년 시장과 오락, 대중매체를 비롯하여 재외 아프리카인이 주는 기회를 바라보고 있다. 본고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 국가의 경제 성장을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그 지역의 경제 성장과 향후 전망을 고찰하려 한다.

II. COVID-19와 아프리카 경제 특성

1. 코로나 19와 아프리카 현황

아프리카 대륙은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 13억 명(2021년 기준)이라는 많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아프리카 대륙과 경제협력과 교역의 중심 지역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평균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의 중간연령 18세 이상의 비율도 평균적으로 30% 이상이 되고 있어 젊은 노동력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내의 각 국가별 주요자원과 산업도 다양하여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게 한다. 아프리카 대륙 25세 미만 청년의 비율이 60%가 넘어 이들이 코로나 이후 사회의 주역이 된다면 미래는 더욱 밝을 것으로 보인다.³⁾

아프리카 대륙 내의 중산층은 AFDB 기준으로 3.5억 명이나 되며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37%이지만 점차 증가하여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학자와 아프리카의 미래 예측자들은 아프리카가 성장과 약세를 거듭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젊은 층의 노동력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KOTRA 외교지원팀 전우형 팀장은 아프리카 경제 현황에 대하여 4단계로 분류하여 전망하고 있다. 고속성장기는 2004년-2014년까지로, 이 시기의 평균 성장률은 5.85%로 고속성장을 하였는데 그 이유를 풍부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침체기는 세계 경기 침체 및 원자재 가격 하락(모노컬처 경제의 한계)이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복기(단기)는 완만한 성장회복(원자재 가격 회복, 민간소비 증가)으로 보고 있으며, 도전기(장기)는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불안 요인 해소를 들고 있다.⁴⁾

경제 성장을 위한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도전은,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변혁과 혁신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환율변동과 만성적인 외화 부족으로 인한 환율 변동선 관리에 대한 부분은 긴급한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현지화가 하루 만에 원래 환율의 25%로 평가절하되는 상황은 매우 충격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가 잔존하는 이상 경제 성장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하게 한다. 1960년대 이전보다는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면서 안정을 찾고 있지만, 집권 연장⁵⁾과 쿠데타, 부족 간의 갈등,⁶⁾ 선거 결과를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경제 성장의 멈춤 현상을 가져온다.

이상과 같은 현상들은 아프리카의 어두운 경제 전망을 지니게 한다. 코로나 19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 더해, 장기 집권과 내전, 쿠데타, 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국내 총생산(GDP)은 2020년 1.7%

3) 아프리카인사이트, 2021년5월12일 검색.

4) 전우형, “변화의 아프리카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8.06.20. 6.

5) 아프리카 대륙의 장기집권 지도자들은 알제리의 압델 부테플리카(2018년), 차드의 이드리리스데비의 27년 집권, 수단 의 오마르 알 바시르의 28년 통치, 에리트레아의 이사이아스 아페워르키의 24년 통치, 지부티의 이스마엘 오마르의 18년,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의 31년, 르완다의 폴 카가메의 17년, 부룬디의 피에르 은쿠룬지자 12년, 짐바브웨 로버트 무가베의 37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조세프 카빌라 16년, 앙골라 에두아르도 도스산토스 38년(2017년 퇴임), 콩고공화국 드나 사수 은게소 40년, 적도 기니 데오도로 오비앙 응게마 38년, 카메룬 폴 비야 35년, 토고 파우레 그나싱베 12년 집권 중이다. 이들은 독립 이후 선친에 이어 대통령이 되거나 군부 쿠데타에 의해 장기 집권 중이다 (2018년기준): Standard Chartered Research, News 1, 아프리카 본부 자료 취합:전우형, 전우형, “변화의 아프리카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 10에서 재인용.

6) 장훈태, “에티오피아 유명가수 피살에 유혈시위…부족 갈등 배경은?”, 「jtbc 아침&세계」 2020년7월3일 인터뷰.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수치는 2020년 코로나 19 이전 예상했던 수치에서 5.6%가 떨어진 것이다. 2020년 상반기 이후에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2020년 GDP는 더욱 위축되어 3.4% 축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 성장 예측치보다 7.3%나 떨어진 것⁷⁾으로 평가한다.

2.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

아프리카 대륙이 경제 상황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채무, 기근, 내전, 테러, 전염병과 같이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의해 성장과 멈춤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임정혜는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의 양면성과 향후 전망”이란 글에서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990년 말부터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은 저해와 호전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 가운데 2012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그 여파에도 불구하고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는 2003년에서 2011년까지 5%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2009년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때 아프리카 대륙은 거의 4%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후 계속하여 3.0%의 이상의 성장률이 지속되다가 2016년에는 1.45의 경제성장률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4%와 4.35의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1-2년 사이에 성장률을 보인 이후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⁸⁾

위와 같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경제는 성장과 멈춤이라는 두 개의 상황이 반복되는 형편이지만, 경제 성장으로 변화된 긍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1980년대 이후 계속되는 빈곤률의 하락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1981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빈곤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경제의 활성화와 해외로 진출한 아프리카인이 근로소득을 모국으로 송금함으로써 이뤄지는 자금 유입이라 하겠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빈곤⁹⁾을 탈피할 수 있는 국가들은 석유 수출국인 앙골라, 나이지리아, 우간다를 비롯한 소수의 국가만의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석유 수입을 하는 에티오피아, 르완다, 브룬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들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고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제출한 “Southern Africa Economic Outlook 2020-coping with the COVID-19 pandemic”이란 보고서에 나타난 코로나 19가 남부 아프리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회원국은 15개국¹⁰⁾이다. SADC의 현황을 보면, 면적은 556,781km², 인구 3.45억 명, 연간 경제성장률(2018):1.8%, GDP(2018) 7,213억 달러, 평균 인플레이션(2018) 7.1%, 정부 부채비율(2018)은 GDP 대비 56.1%, 무역(2018) 3,768억불(수출1,915억불, 수입 1,852억불), GDP 내 산업 비중(2015)은 서비스 59.4%, 농업 20.2%¹¹⁾로 발표되었다. 남부 아프리카 경제의 주요 특징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곧 경제적 부의 불평등 분배, 빈곤율로 인한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불평등의 경우 UN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불균등이 높은 국가 20위 중 10개 국가가 아프리카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남부 아프리카 지역은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잠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의 조사에 의하면 남부 아프리카의 경제는 불균등한 발전과 경제적 성장의 불균등한 분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 저해와 국가재정 악화, 국가 부채 상승이 초래된다¹²⁾고 평가하고 있다.

7)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 경제전망”, 「-2020 코로나 19속에서-」 African Development Bank, 2020, 1. 자료를 참조함.

8) 임정혜, “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양면성과 향후 전망”, 「한국프랑스학회논문집」 2019(제108권), 1-2 재인용.

9) “빈곤”,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6502&cid=40942&categoryId=316> 37, 2021년6월2일 검색.

10)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세이셸, 스와질랜드,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DR콩고, 탄자니아 등이다.

11)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코로나19와 남부아프리카 경제 전망”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자료」 2020.09.22. 1.

남부 아프리카에서 높은 빈곤 문제가 나타나는 6개국(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남아공, 잠비아, 짐바브웨)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중 빈곤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짐바브웨이고, 그 다음은 마다가스카르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비율로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빈곤 인구가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남부 아프리카에서 빈곤율이 높은 것은 불균등한 경제발전(이중 경제 구조)과 극소수에 집중된 광산과 토지, 더딘 경제 성장, 빈곤 억제와 고용 창출을 위한 제도 부족, 불안정하고 취약한 고용환경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 비공식 경제의 공식 경제로의 전환 실패,¹³⁾ 문화경제로서의 역할 등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프리카 경제가 성장과 멈춤 현상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선진국형 경제 모델을 급속적으로 모방하려는 것이 원인이라는 판단이 든다.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산업화·다양화가 되지 않아 서비스업·농업·광업(원유산업)·¹⁴⁾소규모의 어업 등 일부 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그 외에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회원국의 경제적 주요 특징은 높은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높은 실업률의 지속, 특정 국가 의존도에 따른 경기침체와 부정적 결과(남아공 의존)등이 성장률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19 이전의 남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곧 거시경제는 낮은 경제 성장률(0.3%), 산업화 및 경제변혁 지연 등이 심화되어 경제성장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국가별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9년 남부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의 7% 성장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에 미달성된 상태이다. 남부 아프리카의 경제의 주요 특징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경제적 불평등, 높은 빈곤,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농업, 서비스업, 광업(원유)), 재정적자와 높은 국가 부채, 높은 실업률의 지속 등이다.¹⁵⁾ 재정적자 면에서도 2019년 앙골라, 보츠와나, 마다가스카르는 목표달성을 이루었지만, 경상수지는 11개 국가만 달성했다. 그 가운데 말라위와 모잠비크는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고, 반면에 국가 부채는 보츠와나,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는 목표를 달성했다. 물가상승률 부분에서 남아공,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레소토, 보츠와나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해외로부터 필수품목 수입 분야에서 앙골라, 보츠와나, 모리셔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는 코로나 이전 거시경제 측면에서 발견된 것이다.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국가 중 모잠비크의 2021년 주요 정부 정책 현황을 보면 코로나 19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모잠비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위축과 함께 북부 지역 가스개발 지역 내의 반군 활동에 따른 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전년 대비 GDP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잠비크 정부는 2020년 GDP 성장률이 0.8% 수준으로 추정했고, IMF에서는 전년 대비 -0.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았다.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3.25%, 1.09%,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으로 발표되었다.¹⁶⁾

아프리카 대륙으로 유입되는 해외자금은 20억 달러나 증가해 1,797억 달러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화경제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해외투자를 비롯한 자금 유입은 직접투자대상이 비자원 국가로 확대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해외 직접 투자 분야가 자원 중심분야에서 서비스, 제조업, 인프라 개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¹⁷⁾

남부 아프리카의 경우 거시경제 현황은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2019년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GDP 성장률은 0.3%에 그쳤는데, 이 수치는 동부 아프리카 경제성장

12)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코로나19와 남부아프리카 경제 전망”, 재인용.

13)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코로나19와 남부아프리카 경제 전망”, 2.

14)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코로나19와 남부아프리카 경제 전망”, 2.

15)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코로나19와 남부아프리카 경제 전망”, 2-4.

16) 문진욱, “모잠비크, 2021년 경제전망 및 주요 정부 정책 현황” 「KOTRA해외시장뉴스」 2021년5월1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bs/kor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lids=242&dataldx=186866&pageViewType=&column=&search=&s>. 2021년5월1일 검색.

17) African Economic Outlook(2017).: 전우형, “변화의 아프리카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 12재인용.

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아프리카 5개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9년 마다가스카르(5.2%)와 모리셔스(3.7%)만이 예외적으로 아프리카 평균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이 특이하다. 남부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낮은 경제성장률이 나타난 요인은 세계 경제 불황, 원자재를 비롯한 원유와 광물(특히 구리)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출 저하가 원인이라 하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전력 공급의 불안정과 재정 여력 부족, 농업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받은 가뭄과 사이클론 피해 또한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¹⁸⁾

서부 아프리카의 경제는 해안 국가와 내륙 국가로 형성되어 있다. 이 국가들은 자연환경과 지하자원이 풍부하지만, 국가와 기업, 식민지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의 서로 상충되는 가치로 이해되는 방식에 의거하여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원료를 채취함으로써 자연의 파괴가 심각하며, 무한 경쟁시대에서 주주우선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용인되어 경제 성장은 약한 편이다. 또 기업가들에게 경영을 통해 주주우선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에 환경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규제가 큰 차원으로 작용했을 수 있지만¹⁹⁾ 유럽을 비롯한 경제대국들의 직·간접적인 규제가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서부 아프리카의 경제는 기업의 친사회적 목표 곧 공유가치에 대한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 분야 전문가 혹은 서구 세계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의 기업 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경제활동 기회가 없다고 보고 경제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리베카 헨더슨(Rebecca Henderson)이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숨을 쉰다. 하지만 삶의 목적이 숨을 쉬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지적이다. 그는 “자본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살기 좋은 지구와 건강한 사회라는 맥락에서 번영과 자유를 추구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²⁰⁾”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경제활동은 특정인에 의한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국민 대부분은 정부와 기업의 이익일 뿐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은 약한 편에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코로나 19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확실하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가난과 기아가 더욱 심각해진 가운데, 의료물품 지원의 어려움으로 말라리아까지 다시 유행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존 응켄가송(John Nkenga Song)이 아프리카 대륙 수십 개 국가의 코로나19 검사능력은 “매우 제한된 상태”라는 언급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²¹⁾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경제학자인 라-사블르가 세이두 우웨드라오고(Ra-Sablga Seydou Ouédraogo)는 “대외무역과 기업들의 정상적인 활동에 빗장이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국제 통화기금은 상황이 2008년 때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5%가 넘는 경제 손실은 국내총생산의 1.6% 감소와 함께 2020년 사하라 이남²²⁾ 아프리카 지역을 경제 불황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이 지역 역사상 최악의 침체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²³⁾ 그는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²⁴⁾

18)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코로나19와 남부아프리카 경제 전망”, 4.

19) 이관휘, “자신감 넘치는, 지구를 위한 따뜻한 손 내밀”, 『자본주의대전환』(서울: 어크로스, 2021), 11.

20) Rebecca Henderson, *Reimagining Capitalism in a World on Fire*, 임상훈 옮김/이관휘감수 『하버드 ESG경영수업 자본주의 대전환』(서울: 어크로스 2021), 68-69.

21) 정영훈, “아프리카, 코로나19 확산에 굶주림·말라리아까지 우려” 「KBS NEWS」 2020년4월24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32322>, 2021년5월27일 검색.

22) 심승우, “아프리카 제조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주요이슈 브리핑』 제2권1호(한·아프리카재단, 201906): 119.; 연구자는 2019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15년 1.39%의 성장을 최저점 이후에 2018년 3.06%로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2019년에는 3%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 안미지, “라-사블르가 세이두 우웨드라오고, 경제학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찰 - Goethe-Institut Korea”(저작권:괴테 인스티튜트, 온라인 편집국), 2020년07월. 2021년5월27일 검색 재인용.; 라-사블르가 세이두 우웨드라오고는 경제학자이고, 와가두구 제2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연구 분야는 화폐 및 은행경제, 경제정책평가, 갈등 속의 경제정책이다.

24) 안미지, “라-사블르가 세이두 우웨드라오고, 경제학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찰 -, 재인용.

“... 많은 사람들은 또한 아프리카에 체제적 파국이 불어 닥칠 것이라며 지탄했다. 파국도 쇼비니즘적 승리의 확신도 막아야 한다. 논의되고 있는 가설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 어떤 설득력 있는 경험적 주장도 아프리카의 저항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제한적 자원 상황 하에서의 정부의 엄청난 노력, 대중 동원, 아이디어가 풍부한 국민들의 이니셔티브들이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팬데믹 역제가 근본적으로 정책이나 공동의 대처로 인한 성과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공포의 시나리오와 무책임한 환호 모두 인간의 대처에 대해 그 효력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과대평가함으로써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프로 비관주의’와 ‘아프로 낙관주의’의 잔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분석적 측면에서 이 둘 모두 흔들리는 기초에 기반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부분이다. 코로나 19는 국가안보와 국가 안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국가사회 전체의 불안감, 테러로 인한 불안에 대해서 보다 팬데믹에 대해 더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보게 된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코로나19 유행을 부추기는 ‘물 위기’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형편이다. 2020년 6월 23일 세계보건기구(WHO)통계를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현재 23만 2,21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사망자는 5,117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²⁵⁾ 아프리카 대륙은 가뭄으로 인해 손 씻는 물은 물론 식수조차 조달이 불가능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제한적이다. 건강한 도시화 대응을 위해 물과 위생에 대한 개선에 투자할 때, 이들의 문제가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3. 언택트 산업과 제조업

2020년7월22일 한국아프리카재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언택트 산업과 제조업”이라는 웹세미나는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전망과 협력에 관한 쟁점들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⁶⁾ 이종일 KT AI이니셔티브추진팀장은 ‘가나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사례’에서,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으로 서부 아프리카 가나의 혁신 아이디어를 소개했는데, 이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AI 기반 엑스레이 영상분석이나 비대면 온도 측정 등 언택트 산업의 부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한 모로코대사인 샤희 라샤디(Chafik Rachadi)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의 부품 생산 공장, 유럽의 제조공장, 북미의 조립공장들이 폐쇄됐다”며 장거리 공급망의 취약점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모로코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 정치적 안정, 숙련된 노동력, 자유무역협정과 양질의 인프라를 이점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견고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모로코에는 이미 르노와 푸조, 시트로엥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최근 한국기업의 진출도 이어지고 있는 바, 모로코는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이상적인 플랫폼이자 수출거점이 될 수 있다”²⁷⁾고 소개했다.

한편 아프리카 대륙의 각 국가에서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책임 논란이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중국의 원조와 차관 등 경제적 의존 관계가 깊은 관계로 코로나 이후에도 협력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서상현은 “중국은 경제협력 관계 뿐 아니라 아프리카에 코로나 19 방역제품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의 중국 의존도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김용민 개발 마케팅 소장도 “선진국이 아프리카 원조 규모를 줄이는 데 비해 중국은 규모를 키우고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²⁸⁾

25) 박희정, “코로나 유행 중 물 위기 어느 때보다 심각해-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2020년7월10일. www.ecofuturenetwo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70 2021년5월27일 검색.

26) 장훈태, “한·아프리카재단, 대한상공회의소와 웹세미나 공동개최 웹세미나 참여” 2020년7월22일 15:00-17:00.

27) 김덕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언택트 산업과 제조업”, 「매일경제」, 2020년7월22일.,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7/751761/>, 2021년5월27일 검색.

28) 강성철, “코로나19 책임논란, 중국 영향력 아프리카서 더욱 커질 것”, 연합뉴스, 2020년8월7일뉴스.

한편 동부 아프리카의 요충지역으로 평가받는 케냐는 동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케냐의 산업환경에 대하여 “케냐는 2016년 기준 692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제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²⁹⁾ 심승우의 평가는 케냐의 제조업 특성과 국가전략을 엿볼 수 있다. 케냐의 제조업 육성 정책 곧 중기 정책을 계획한 것을 볼 때, 케냐의 경제 성장의 가능성을 엿보게 된다.³⁰⁾ 연구자가 2014년 에티오피아의 북부·동남부 지역을 탐사하였을 때, 이 지역의 산업 구조는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농업 부분에서 동부에서는 커피, 북부는 밀 등을 비롯한 작물을 생산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40% 육박한 것으로 보였다.³¹⁾ 그 외에 서비스업 45%, 제조업 순으로 산업 구조가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실제적으로 에티오피아의 제조업 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가 차원의 개발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³²⁾ 탄자니아는 세계적으로 빈곤한 국가로 평가되었으나 최근 들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탄자니아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아 생산자들의 농가 수익을 상승시키고 있으며, 서비스 부분과 민간투자 유치 및 확대를 매년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탄자니아는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남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와 우라늄, 장작과 숯을 비롯한 임산자원과 농축산 자원, 수산자원,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지리적으로 중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콩고(DRC)동부, 우간다, 부룬디, 루아다, 말라위, 잠비아 등의 내륙 지역의 관문(Gateway)으로서 이들 국가에 대한 진출과 거점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11월 30일 동아프리카경제 공동체 창설(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3국정상)에 협정 서명을 한 국가로서 산업 환경이 적절한 것으로 전망한다.³³⁾ 심승우에 의하면, “탄자니아는 해외원조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농업 의존도가 높아 산업 구조에 있어 농업 분야가 34%, 금융과 부동산, 사업 서비스가 10%, 건설업 10% 등 GDP 대비 제조업³⁴⁾ 비중이 8-9%를 기록할 정도로 낮다.”고 평가한다.³⁵⁾ 그러나 최근 들어 탄자니아 정부는 제조업 특성과 유망 분야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의약 및 의료관련 산업발전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동부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동부 아프리카 내륙지방의 르완다는 지정학적 위치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면적과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이다. 그동안 르완다는 3선에 성공한 폴 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높여 가고 있는 동시에,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국가 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다양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려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르완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물가상승률이다. 르완다 경제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농촌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농민들의 위축과 도시민들의 어려움은 동일한 수준의 것으로 보인다. 르완다에 속해 있는 개신교회의 교회들 역시 재정압박으로 인한 개별 교회의 건축재정 및 교단 차원의 건축재정을 통한 운영방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교단 본부의 직원 감축, 운전기사 명예 퇴직 등을 통해 건축정책을 펴고 있다. 교단 내의 긴급한 상황과 차량 운전이 필요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인력을 보충하는 형태라고 한다.³⁶⁾ 또한 르완다의 산업과 국가발전전략 부분에 관한 김○○과의 전화인터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문: 코로나 19 상황에서 르완다 정부의 제조업과 국가발전 전략은?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6136300371>, 2021년5월27일 검색.

29) 심승우, “아프리카 제조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125.

30) 1차 중기계획:2008-2012년, 2차 중기계획:2013-2017년, 3차 중기계획:2018-2022년.:심승우, “아프리카 제조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126에서 재인용.

31) 2014년 1월 아디스아바바 현지 가이드 Song의 정부 정책 설명.

32) Trading Economics, 2021년5월28일 검색. ;심승우, “아프리카 제조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130-131.

33) www.mofa.go.kr, 외교부, 2021년5월28일 검색.

34) 연구자가 2013년 탄자니아 수도와 인근 지역을 탐사한 결과 산업과 제조업, 농업기반 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개발 비전의 추진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35) 심승우, “아프리카 제조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133-134.

36) 장훈태, “르완다 현지 거주 김○○와의 르완다 상황 인터뷰” 2021년5월28일 오후 3시40분-4시 카카오톡전화.

답변: 현재 르완다 정부의 상황은 2006년 이후 GDP는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르완다가 내륙 지방에 위치한 관계로 정부의 노력과 경제 성장의 낮은 부패지수를 기록하면서 성장잠재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이후 르완다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분야(건축)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르완다에 도착한 2006년에 비하면 현재 르완다 국민 소득 수준은 2배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르완다의 제조업이 20% 정도라고 한다면 80%는 원자재를 비롯한 생필품을 80%는 수입해야 합니다. 국가 발전 정책의 급선무는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현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경제정책의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답변: 정부의 국가발전 정책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1년 6월에 개최된 46개국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역시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정상회담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정부는 정상들을 맞이하기 위한 호텔 신축과 리모델링, 골프장 건설을 하는 중입니다. 르완다는 인근 국가들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볼 때 정부의 조정능력은 빠른 편입니다. 다만,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등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GDP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르완다는 국가, 인구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인근 국가보다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국가 번영을 위해서는 국가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국민 소득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질문: 르완다 정부는 외국기업유치나 정부의 투자상황은 어떠한가요?

답변: 르완다 정부의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은 주변국보다는 투자가 약한 편입니다. 외자 유치가 미미한 상태에서 정부의 행정력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르완다에서 사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 기업이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특히 세금이 비싼 편입니다. 둘째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운송비가 비싼 점이 있습니다. 외국의 원자재 수입을 위해서는 항만을 이용한다 해도 케냐의 몸바사, 탄자니아의 항구를 이용해야 하고, 육로를 통해 이동해야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대부분 사료공장, 서비스업, 약간의 제조업 뿐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인들의 투자로 르완다 건축 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지만, 현지인들과 한국 기업은 틈새시장을 통해 사업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셋째는 제조업의 활성화라고 한다면 르완다 커피 수출을 위한 로스팅 자동시스템화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와 차 등 농산물, ICT 분야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농산가공품 및 가죽제품 외에 목재, 종이, 화학제품, 식용유, 포장재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는 2006년에는 2개의 브랜드가 있었지만, 현재는 10종류나 될 정도로 다양한 커피 생산 체제를 갖춘 것만 보아도 제조업 육성정책은 과거보다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르완다 정부의 제조업 및 산업발전을 육성정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업 분야는 커피를 비롯한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2000년에 수립된 장기 개발 전략을 근간으로 하여 중장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개발 및 빈곤 감소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하위 분야별 전략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르완다의 국가 비전 계획의 목표는 국가 통합 및 종합적 성장 기반을 높이는 것이며, 거시경제 안정화와 원조 의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농업경제기반에서 지식경제 기반으로 변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농업의 현대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르완다 정부는 획기적인 경제 성장과 빈곤감소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세워 경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의 2029년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답변: 그동안 르완다 정부는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매년 11.5%의 GDP 성장과 연간 30%에 육박하는 수출증가로 빈곤율을 30% 미만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통적인 농업기반에서 벗어나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민간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한 제품 개발과 생산을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중

입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산업과 세금 관련, 자동차 속도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원격 카메라 설치로 국가재정확보를 시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 속도위반 단속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국가를 위해 도로 정비와 단속카메라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2021년5월28일 현지 거주 한인들과 전화인터뷰를 한 것이지만, 심승우는 르완다 경제의 특성으로 “르완다 4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제조업 기반 구축, 급속한 도시화 현상과 도시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전략 추구, 산업단지 구축(농산물 가공업,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통한 집중육성 전략”을 들고 있다.³⁷⁾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코로나 19로 경제 성장은 전반적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제조업 및 산업 다각화를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국가의 경제 성장 역량의 핵심은 각 국가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산업발전과 각 분야별 역량 강화,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향후 제조업 발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과제로 정책을 세운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III.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방안과 선교

1.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기반

21세기형 국가 경제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투자·인구라는 3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국가적으로 인구가 증가한다는 현상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건·의료 예산도 더 풍성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교육·기술혁신을 갖추기 위한 투자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불러온다.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렵과 유목,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에 집중되었지만, 서구의 침략과 자원개발을 통한 경제를 인식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 왔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석유와 면화를 주요 상품으로 팔았던 때가 있었고, 목재와 석유, 농산물을 수출하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사람들의 마음을 흠치기 시작했다. 최근 아프리카 경제의 이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감면, 규제 완화, 팬데믹 효과 등 결합된 축복이라 평가하는 경향도 높다. 포스코 경영연구원 서상현은 아프리카 경제발전을 위해 “또 다른 성장 동력,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만이 기존의 자원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섬유, 가전, 자동차 등 다양한 제조업 유치와 철도, 항만, 발전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한 새로운 경제도약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³⁸⁾

국가를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과 산업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업 발전이다. 두 번째는 각 국가별 경제 발전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각 국가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정교하게 수립되어야³⁹⁾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현지 시장의 수요확산, 기업과 소비자들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지원되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국가별로 경제개발을 위한 기획,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장·단기적 산업단지 육성 및 전략과 방향을 비롯하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대학교 학생들의 국가발전에 대한 희망은 IT기업⁴⁰⁾의 유입과 창업에서 관심이 높았다. 대학생 대부분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보다는 IT산업을 통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자리·투자·인구 증가를 모두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와가두구 대학교 학생들의 뚜렷한 목표의식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산업인프라 구축과 신흥국가들의 트렌드가 수입대체 제조업 및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

37) 심승우, “아프리카 제조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141.

38) 서상현, “아프리카의 또 다른 성장동력,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포스코경영연구원」 2016.07.07.;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4157>, 2021년5월31일 검색.

39) 2017년7월 부르키나파소 와가대학교 교내에서 만난 학생들과의 대화 내용임.

40) Robert e. Lucas,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2(1):3-4. Lucas는 IT, 로봇으로 구성된 것은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세계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한다.

어 전략적 특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은 아프리카에 이미 진출한 가발산업(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 나이지리아 등등)을 비롯한 경공업, 기술 집약형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 심승우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족이 많은 관계로 가족산업 발전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한 것과 같이 섬유산업(부르키나파소의 면화생산), 농산물 가공, 제당, 금속가공 등을 전략육성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국가와 함께 기술연구 마케팅 전략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⁴¹⁾

2. 지속 가능한 개발정책과 환경과 빈곤 탈출

아프리카 대륙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2015년에는 원유 및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함으로써 자원의존 경제의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아프리카 대륙의 실제적인 경제성장률은 2015년 3.4%로 둔화되었으며, 지난 15년 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후 매년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2020년에는 3.0%에 머무를 전망이다.⁴²⁾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성장은 더 둔화되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에는 1.7%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2020년 1월 코로나 19 이전의 수치에서는 5.6%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⁴³⁾ 이 수치는 코로나 19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7.3%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앞으로 GDP 누적 손실은 더 큰 폭으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⁴⁴⁾

이와 같은 경제성장 둔화는 우선 아프리카 각 국가들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품 및 에너지 공급의 차질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또 하나는 다른 나라들 특히 자원집약도가 낮은 경제구조의 국가들의 경우 도시 봉쇄정책과 조치 및 기타 제한조치들로 인한 총수요의 급락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했다. 팬데믹으로 촉발된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개발정책과 환경변화로 인해 빈곤⁴⁵⁾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의 상승, 근원 물자의 팬데믹 이후 수요가 다시 증가할 때까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⁴⁶⁾ 그러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아프리카 경제는 이미 높은 재정적자를 배가시킬 수 있는 재정 지출확대를 비롯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 부채 부담의 증가는 빈곤율을 높이는 근원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각 국가의 국가 부채가 상승하게 되면 빈부의 격차, 난민 발생, 테러, 쿠데타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해양 사고(테러와 납치)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급감은 아프리카인들의 취업을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로 인한 이민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빈곤퇴치 전략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⁴⁷⁾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1990년대 이후 빈곤퇴치⁴⁸⁾ 전략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환경보호와 복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정한 바 있다. 2015년 이후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와 관련된 분야에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방향으로 세워가고 있다. 다만 국민들이 얼마나 정부의 정책과 개발 전략을 수용하고 적용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

41) 심승우, “아프리카 제조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143-144.

42) 서상현, “아프리카의 또 다른 성장동력,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POSRI 이슈리포트」,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4157>, 2021년6월2일 검색.

43)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경제전망 부록 2020 코로나 19속에서」, African Development Bank 2020, 1.

44) 김유아, 『나의 첫 아프리카 수업』 (서울: 초록비책공방, 2021), 274.

45) Paul Krugman, Robin Wells, Kathryn Graddy, *Essentials of Economics Second (2nd)* (Worth Publishers, 2010), 426-427.

46)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경제전망 부록 2020 코로나 19속에서」, 1.

47) Kenneth Laudon and Jane Laud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anaging the Digital Firm* (Pearson Education, Inc., 2021)을 참조하라.

48) 이덕선, “아프리카의 빈곤”, 「경기일보」, 2019년09월22일.,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idxno=2167267>, 2021년6월2일 검색.

구하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제국주의와 독립국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한다”는 안건을 결의하고, 이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있는 17항의 전략목표 가운데 첫 번째 전략목표로 세웠다. 이 가운데 아프리카와 연관된 5개 세부목표는 빈곤⁴⁹⁾의 탈피, 상대적 빈곤의 극복, 빈곤층과 차상위층의 다양한 사회보호체계의 혜택과 재산, 자원,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기회와 균등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경제사회환경과 관련된 빈곤층의 위험성과 취약성에 대한 대응이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발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SDGs의 첫 목표인 모든 형태의 빈곤⁵⁰⁾종식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균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의제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프리카의 지속발전과 절대빈곤⁵¹⁾ 탈출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겠지만, 먼저 국가 내의 빈곤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제반 지원으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두 번째는 국가 지도자들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다각적 추진, 선진국과의 산업화를 위한 경제외교 정책의 강화이다. 세 번째는 특정 산업단지 형성을 통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단지 내의 노동력확보라는 특수한 정책을 통하여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을 하는 일이다. 네 번째는 일정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절제이다. 다섯 번째는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 공존 모색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은 빈곤, 환경, 테러, 분쟁 등의 근본적인 이유와 내부적인 부족 문제⁵²⁾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도시 또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산업과 노동시장, 노동 인프라가 근간이 된다고 본다. 매년 증가하는 도시화, 산업단지의 개발 확충으로 인한 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진출을 비롯하여 발전 가능한 잠재력이 많음을 보고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어 새로운 아프리카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경제적 영향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힘든 상황을 만들었지만, 점차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54개 국가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0년 6월22일 기준 304,642명이며, 사망자 수는 8,087명을 기록했다.⁵³⁾ 그리고 2021년 03년8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96만3천706명에 달하며, 누적 사망자는 10만5천722명이고 완치자는 354만989명이다. 존 응켄가송(john nkengasong) 아프리카 CDC(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으며,⁵⁴⁾ 팬데믹 피로증이라 불리는 것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아프리카 대륙을 위한 의료장비와 인력, 백신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내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회적·경제적 영향이다. 이는 대륙 전역 보건 시스템의 열악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경제 침체와 락다운(lockdown)으로 빈곤층이 더욱 소외되어 가고 있는 점, 장기적인 개발과제인 빈곤, 전쟁, 폭력, 그리고 증가하는 기후환경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처방식에 따라 아프리카의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의 경제개발과 빈곤 탈출, 그리고 필요한 백신에 대한 아프리카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 보건 이슈들에 대한 비용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49) N. Gregory Mankiw, *Essentials of Economics* (Cengage Learning, 2019), 13-20.

50) 아프리카 대륙의 빈곤 원인으로는 개인의 무능력과 게으름, 부유에 대한 동기부족, 낮은 기대감, 의타심, 낮은 자존감 등이라 하겠다. 빈곤의 요인은 사회국가적 차원과 시기에 맞는 교육의 부재,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더딤현상, 신자유주의적 경제에 기반을 둔 세계화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장성우, “빈곤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 budreview.com, 2021년6월2일 검색.

51) 연합뉴스, “절대빈곤 인구 전세계 12억명...하루 1.25달러로 살아가”, 2013.10.16, <http://www.yonhapnews.co.kr/medialabs/special/poverty/index.html>, 2021년6월2일 검색.

52) 장훈태, “에티오피아 유명가수 피살에 유혈시위...부족 갈등 배경은 ?” 「jtbc 아침&세계」 2020년7월3일 인터뷰.

53)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경제전망 부록 2020 코로나 19속에서」, 2에서 재인용.

54) 김성진, “아프리카 코로나 19 누적확진 400만명 근접”, 「연합뉴스」, 2021년03월0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8141500099>, 2021년6월3일 검색.

내에서 이뤄지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경제적 지원은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인 동시에 국제연합의 의무이다. 기독교 역시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사회적 소외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적 가치를 실행하는 일이다.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한 분이었고, 예언자들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할 사람, 사회적 불의의 희생자로 옹호해야 할 존재로 보고 이들을 성실하게 도왔다(신 10:17-19). 코로나 19는 사회·경제적 계층 간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소수 부유층과 다수 빈곤층의 양극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the spirit of good Samaritan)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빈곤 탈출을 위한 다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⁵⁵⁾과 관심이 필요하며 경제 권력⁵⁶⁾을 적용하지 않을 때 참된 공유경제가 가능할 것이다.

3. 아프리카 대륙의 변화발전을 위한 정책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아프리카 대륙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진정세로 보일 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을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아프리카는, 감염자들을 격리 및 치료할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높은 질병 취약성(말라리아, 에볼라 등등)과 빈곤한 의료시스템으로 인한 심각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항상 상존(尙存)하는 상황이다. 54개 아프리카 국가 중 21개국 정도만 팬데믹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임상적 관점이 준비되어 있을 뿐, 나머지 33개 국가는 전염병을 대처할만한 시설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⁵⁷⁾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아프리카인들이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과 적어도 2,500-30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및 개발협력부문에 대한 정책을 조율하고 지원 대상 국가를 정한 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대륙의 팬데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은 다각적이어야 하고, 의료시스템의 구축, 자금 유동성 제약 및 파산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다각적 대응,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기업의 세금감면과 노동시장 정책,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이후의 충격을 감소하기 위한 국가지도자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적 구조적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공중보건 위생 대응은 바이러스의 확산 저지와 감염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인지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개발을 통해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때,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CDC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지원 계획 및 경제개발 정책, 보건 의료 지원계획과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캠페인,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홍보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대륙의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정책적 대응, 통화 정책적 대응, 노동시장 대응을 비롯하여 다양한 구조적 정책을 체계화하면서, 경제 공식화를 위한 걸림돌을 대처하고, 자본의 유입과 접근, 운영을 확장할 수 있는 공식화의 이점을 강조하는 일이다.⁵⁸⁾ 그리고 빈곤자들에 대한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재점검과 확충, 보다 체계적인 실행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고, 경제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균형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실행과 각 국가별 협력과 정보공유가 형성되고 실행된다면 각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와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분야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각 국가들은 시장과 정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유가치를 만들고, 협력하고, 재무의 힘을 이용하는 일 등 모든 업무에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⁵⁹⁾ 경제 모델을 설계하여 모든 사람이 느끼는 실증경제를 이루어 갈 필요가 있다.⁶⁰⁾ 아프리카 각 국가의 기업들의 생존과 활동

55) Gregory N.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Mason, OH: Cengage Learning, 2018), 6.

56) Karl and Engels, Marx, Friedrich(2004.1848).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Marxists Internet Archive.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8/communist-manifesto/index.htm> 2021년6월3일 검색.

57)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경제전망 부록 2020 코로나 19속에서」, 2-3.

58)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경제전망 부록 2020 코로나 19속에서」, 4-5.

59) Rebecca Henderson, *Reimagining Capitalism in a World on Fire*, 77.

을 보장하는 일도 중요한 정책이다. 기업의 생존은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 공동체와 제도적·문화적 상황의 영향을 받지만, 개인으로 보면 제도의 창조물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기반이 되는 가치들을 재발견하고,⁶¹⁾ 이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행동과 믿음 역시 개발되어야 한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을 맞춘다”⁶²⁾는 지적과 같이 경제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시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갈 필요도 있다. 그의 지적과 같이 아프리카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아프리카 경제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 전문가들과 기독교 전문가들을 통하여 과거를 보고, 현재를 판단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간다면 아프리카의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경제 원리를 초월한 새로운 발전을 가져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적 불평등⁶³⁾은 극소화될 것이다.

IV. 나가는 말

인간이 살아가는 문화 공간은 돈과 함께 간다. 칼릴 지브란은 “돈은 사랑과 같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며, 다른 인간에게 그것을 주는 사람들을 활기치게 만든다”⁶⁴⁾는 표현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급변하는 세계화⁶⁵⁾로 국가 간의 불평등의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나눔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보이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와 국가주의에 의해 다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투자전략은 아프리카 대륙의 이익추구 태도라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시장개척과 노동력 파견을 통한 제2의 차이나대륙에 대한 야망이 강하게 보여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유럽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 주면서 원자재와 자원 확보로 인한 아프리카인의 경제적 빈곤에는 무관심해 왔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 54개 국가의 지도자들은 중국과 강대국들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양면성을 인지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과 해결책이 쉽지 않고 상호관계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코로나 19는 아프리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국제기구 혹은 단체들이 경제협력의 단초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에 손을 놓을 수 없는 현실에서 몇 가지 해결해야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것은 첫째,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밀도 현황과 매년 증가하는 도시화에 따른 산업화, 노동력, 경제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있다. 둘째, 각 국가별 인구증가에 따른 빈곤을 상승에 대한 억제 정책을 비롯하여 도시화 현상에 따른 산업구조와 노동인구의 이전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정책 입안의 변화, 도시화 속의 양극화 심화에 대한 사회문제를 극소화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⁶⁶⁾ 코로나 19로 인해 아프리카의 경제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소수의 다국적 기업과 자본가의 부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성장 여건 개선에 정부가 협력하는 것이라고 본다. 세계화와 경제 양극화 간의 상관관계와 원인을 명확히 밝히거나 기존의 시스템으로 간극을 좁히는 것은 어렵겠으나, 이에 대한 범국가적 협력과 공조체제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유럽의 부흥정책과 대(對)아프리카 원조는 지금까지 ‘개발도상국 대 아프리카, 빈곤과 낙후의 대

60) Robert Skidelsky, *What's wrong with Economics*, 장진영옮김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학』(서울: 안타레스, 2021), 118-119.; 실제경제는 현실적 가정에서 출발하고, 올바른 예측을 통한 경제, 명백한 공리에서 출발하는 추론의 결과를 통해 경제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1) John Kenneth Galbraith, *The New Industrial State* (London: Hamish Hamilton, 1967), 34-100을 참조하라.

62) Robert Skidelsky, *What's wrong with Economics*, 247.

63) Thomas Piketty, *Capital in the 21ST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Robert Skidelsky, *What's wrong with Economics*, 251에서 재인용.

64) Rebecca Henderson, *Reimagining Capitalism in a World on Fire*, 84.

65) Joseph E. Stiglitz, *People, Power, and Profits*, 박세연옮김 『불만시대의 자본주의-공정한 경제는 가능한가-』(서울: 주식회사 열린책들, 2021), 133-143.

66) 김유아, 『나의 첫 아프리카 수업』, 294-300.

륙'이라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게 했다. 1970년대에 발생한 제1차 석유파동과 1980년대의 제1-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개발도상국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세계 은행과 IMF는 외채위기에 처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별지원 차관을 제공하였다. 1990년대에는 소련의 해체와 2000년대의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개발 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성립되면서⁶⁷⁾ 아프리카 대륙은 빈곤 탈출이라는 커다란 짐을 조금씩 벗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제성장과 빈곤 탈출,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을 위한 초점에는 깊이 있는 고민이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제기구들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⁶⁸⁾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위한 세계 각 국가의 협력은 빈곤 및 보건·의료 시스템 보완과 서비스 지원이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신생아 사망률이 높고,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매년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산모 사망률 또한 여전히 높은 편이다.⁶⁹⁾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끊임없는 긴장을 보여주는 종교적 갈등, 부족 사회의 선행연구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이해가 필수적이다. 종교와 부족 사회, 문화적 정체성(관습)의 이해는 사회 갈등의 전개 양상을 미리 인지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기독교와 이슬람협력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States:OIS) 간의 관계, 종교 간의 갈등과 충돌 역시 경제협력과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 간의 화해를 공존의 기술을 통하여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덕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언택트 산업과 제조업”, 「매일경제」, 2020년7월22일.,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7/751761/>, 2021년5월27일 검색.
- 김유아, 『나의 첫 아프리카 수업』, 서울: 초록비책공방, 2021.
- 김성진, “아프리카 코로나 19 누적확진 400만명 근접”, 「연합뉴스」, 2021년3월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308141500099](https://www.yna.co.kr/view/AKR20210308141500099), 2021년6월3일 검색.
- Galbraith, John Kenneth. *The New Industrial State*. London: Hamish Hamilton, 1967.
- Laudon, Kenneth. and Laudon, Jan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anaging the Digital Firm*. Pearson Education, Inc, 2021.
- Lucas, Robert 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22(1):3-42.
- Mahajan, Vijay, *Africa Rising*, 이순주옮김, 『아프리카 파워』, 서울: 에이지, 2010.
- Mankiw, Gregory N, *Principles of Economic*, Mason, OH: Cengage Learning, 2018.
- Mankiw, N, Gregory *Essentials of Economics*, Cengage Learning, 2019.
- Marx, Karl and Engels, Friedrich(2004.1848),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Marxists Internet Archive,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8/communist-manifesto/index.htm>, 2021년6월3일 검색.
- 심승우, “아프리카 제조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주요이슈 브리핑」 제2권1호(한·아프리카재단, 201906): 117-166.
- Skidelsky, Robert, *What's wrong with Economics*, 장진영옮김,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학』, 서울: 안타레스, 2021.
- Stiglitz, Joseph E, *People, Power, and Profits*, 박세연옮김, 『불만시대의 자본주의-공정한 경제는 가능

67) 김유아, 『나의 첫 아프리카 수업』, 306-308.

68) 2020년 한국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개발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비대면 포럼을 통하여 발전가능성 모색을 위한 발제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예로, 서울아프리카대학, 한눈에 보는 아프리카 등의 논문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69)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알제리·나이지리아·탄자니아 정책보고서」(서울: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2020), 96-97.

한가-』, 서울: 주식회사 열린책들, 2021.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 경제전망”, 「-2020 코로나 19속에서-」 African Development Bank, 2020, 1-7.

이관휘, “자신감 넘치는, 지구를 위한 따뜻한 손 내밀”, 『자본주의대전환』, 서울: 어크로스, 2021.

이덕선, “아프리카의 빈곤”, 「경기일보」, 2019년09월22일.,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7267>, 2021년6월2일 검색.

임정혜, “아프리카 경제 성장의 양면성과 향후 전망”, 「한국프랑스학회논문집」 2019(제108권), 299-323.

강성철, “코로나19 책임논란, 중국 영향력 아프리카서 더욱 커질 것”, 연합뉴스, 2020년8월7일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6136300371>, 2021년5월27일 검색.

윤영준, 『아프리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난-아프리카는 왜 아직 가난한가?』, 서울: 지식과 감성, 2020.

장훈태, “에티오피아 유명가수 피살에 유혈시위…부족 갈등 배경은 ?” 「jtbc 아침&세계」 2020년7월3일 인터뷰.

전우형, “변화의 아프리카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8.06.20. 1-42.

Krugman, Paul, Wells, Robin, Graddy, Kathryn, *Essentials of Economics Second (2nd)*, Worth Publishers, 2010.

Piketty, Thomas, *Capital in the 21ST Century*,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2014.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알제리·나이지리아·탄자니아 정책보고서」, 서울: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2020.

Henderson, Rebecca, *Reimagining Capitalism in a World on Fire*, 임상훈 옮김/이관휘감수, 『하버드 ESG경영수업 자본주의 대전환』, 서울: 어크로스 2021.

기타자료

문진욱, “모잠비크, 2021년 경제전망 및 주요 정부 정책 현황”, 「KOTRA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bs/kor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s=242&dataIdx=186866&pageViewType=&colum=&search=&s...>, 2021년5월1일 검색.

박희정, “코로나 유행 중 물 위기 어느 때보다 심각해-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2020년7월10일, www.ecofuturenetwor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70, 2021년5월27일 검색.

“빈곤”,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6502&cid=40942&categoryId=31637>, 2021년6월2일검색.

서상현, “아프리카의 또 다른 성장동력,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포스코경영연구원」 2016.07.07.: <https://www.posri.re.kr/ko/board/content/14157>, 2021년5월31일 검색.

African Economic Outlook(2017).:전우형, “변화의 아프리카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 1-42.

안미지, “라-사블르가 세이두 우웨드라오고, 경제학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고찰 - Goethe-Institut Korea”(저작권:괴테 인스티튜트, 온라인 편집국), 2020년07월, 2021년5월27일 검색
재인용

장성우, “빈곤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 budreview.com, 2021년6월2일 검색.

장훈태, “한·아프리카재단, 대한상공회의소와 웹세미나 공동개최 웹세미나 참여” 2020년7월22일.

장훈태, “르완다 현지 거주 김○○와의 르완다 상황 인터뷰” 2021년5월28일 오후 3시40-4시 카카오톡전화.

연합뉴스, “절대빈곤 인구 전세계 12억명...하루 1.25달러로 살아가”, 2013.10.16, <http://www.yonhapnews.co.kr/medialabs/special/poverty/index.html>, 2021년6월2일 검색.

정영훈, “아프리카, 코로나19 확산에 굶주림·말라리아까지 우려” 「KBS NEWS」 2020년4월24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32322>, 2021년5월27일 검색.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코로나19와 남부아프리카 경제 전망”,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자료」, 2020.09.22. 1-5.

Trading Economics, 2021년5월28일 검색.

www.mofa.go.kr, 외교부, 2021년5월28일 검색.

아프리카미래학회

코로나 사태 이후 아프리카 경제 전망

2021년 6월 19일

Professor LEE, Jin-sang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Society, Dean of Admissions Offi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jinsang.lee@sunykorea.ac.kr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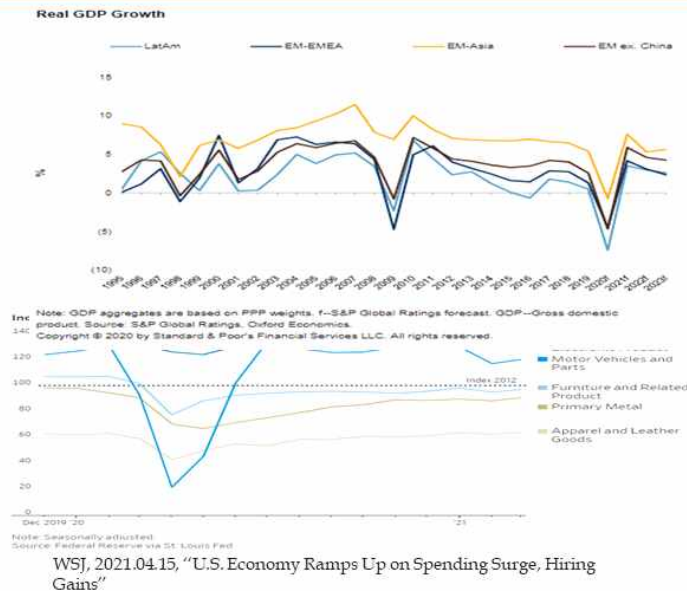
- I. 코로나 사태**
- II. 세계 경제환경 변화**
- III. 코로나와 아프리카 경제**
- IV. 아프리카 경제 전망**
- V. 결론**

I. 코로나 사태

1. 코로나19

•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 및 사망자와 제조업 생산지수 변화

- ❖ As of 14 June 2021
- ❖ World Coronavirus Cases: 176,725,902
- Deaths: 3,819,727
- ❖ Korea:
- Cases: 148,273
- Death: 1,988



2

I. 코로나 사태

2. COVID-19 의 원인과 파급효과

- ❖ 코로나의 원인?
 - 1990-2019 기간 중 글로벌화의 가속도
 - 과학기술의 발달, 교통, 통신, 소득 증가로 국경을 초월하는 인적자원, 물적 자원의 이동이 원활
 - 신흥 공업국 등장 (중국, 인도, 브라질, 터키, 베트남, 등)
 - 세계경제의 다양화 및 다각화
 - 자유무역, 시장경제 체재하의 국가 발전
 - 글로벌화에 가장 큰 혜택은 신흥 공업국,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
- ❖ COVID 19는? 단기간에 전세계에 재앙을 가져옴
 - 글로벌화를 무력하게 만들었음(물적 인적 자원의 이동을 금지)
 - 반면에 언택트 가능(정보통신 기술로 가능): 만약1980년이였다면? 외부활동 금지, 일상생활의 불가능으로, 세계는 거의 정지상태로?

3

3. 코로나19 파급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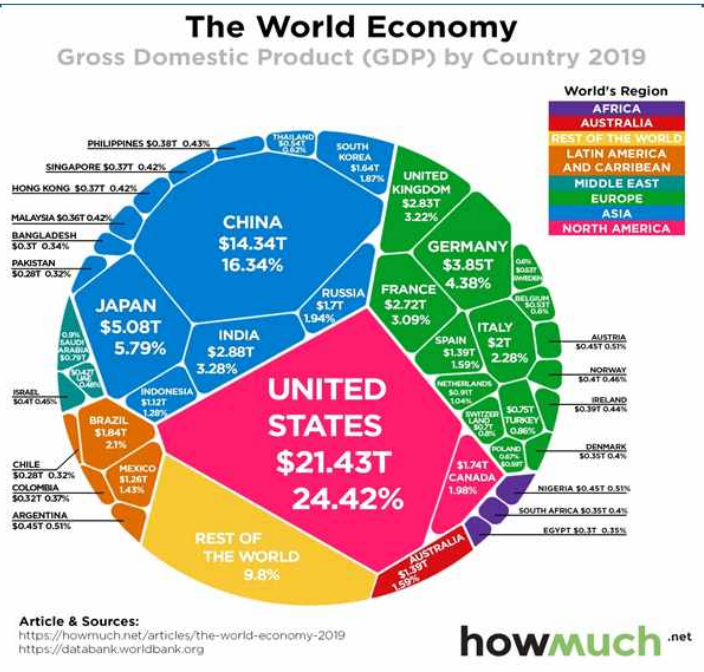
- ❖ 전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마이너스 성장)
 - 세계 -4.4%, 아시아 -0.5, 아프리카-2.8%, 북미-4.2%, 유럽 -4.7%, 남미 -7.2% (World Bank, 2021)
 - 아시아의 선방? 수출 위주의 경제, 경제 활성화; 언택트 산업
 - 한국 경제 2020년: % 성장, 무역감소 -5.5%(5,125억 달러)
그러나, ICT 분야는 3.8% 증가(1,836억 달러)
- ❖ 전세계 경제, 정치, 사회에 대한 파급 효과
 - 선진국, 개도국 공히 막대한 지장 초래;
 - 성장률 감소, 실업자 증가, 국민총생산 감소, 부익부 빈익빈 심화
 - 2021년 12조 달러 금융 손실 예상(Statista, 2021)

4

II. 세계 경제 환경 변화

1. 세계경제의 다각화

- ❖ 1990년
 - 미국: 5.9조 달러
 - 일본: 3.13조 달러
 - 중국: 360억 달러
(1/16 수준에서)
 - 한국: 279억 달러
- ❖ 2019년
 - 미국: 21.43조 달러
 - 중국: 14.34 달러
(약70% 수준)
 - 일본: 5.08조 달러
 - 한국: 1.64조 달러
(세계 12위)



5

II. 세계 경제 환경 변화

2. 세계 경제의 변화

- ❖ 세계 경제 주도 국가들 G7(지난 주 영국에서 회의), G2, G20
 - 세계 경제의 다각화
- ❖ 보호무역 주의의 증가; 국가, 국민, 자원, 산업,
 -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 및 정치적 대립각
 -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 ❖ 유럽연합의 변화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 유로달러 이용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독일이 Big Brother 역할)
- ❖ 아시아 국가들: ASEAN 10. +3
- ❖ 아프리카: AU (2001) 55개 국가, 남미 국가들?
- ❖ 미국의 세계 정치, 경제의 헤게모니는?
 - 경쟁력은 어디에서? 과학기술, 경제력, 군사력, 교육,
 - 연구활동 (Research Oriented Society),

6

II. 세계경제 환경변화

3. 21세기 환경 변화

- ❖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디지털 혁신, 생산성의 상승
 - 산업 간 경계의 붕괴
 - 14세기 페스트 이후 "생존자"들에 대한 실질임금, 정치적 영향력 상승, 이후 반세기 동안의 번영
 - 준비된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
 - 승자독식사회와 불평등 증가
 - 준비된 자들에게 "노동의 황금시대" 가 도래할 것 (A jobs rebound, shifting politics and technological change could bring a golden age for labour in rich countries")
- ❖ 누가 세계의 부를 지배하는가?
 - 신성장 동력과 직접적으로 관련
 - 최첨단 산업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7

II. 세계 경제 환경변화

4. Center of the World Economy

- ❖ 전통산업: 농업, 중화학 공업은 중후 장대
 - 제철, 석유 화학, 자원 개발, 자동차, 조선
- ❖ 제4차 산업혁명시대
 - 과학기술 및 정보 통신기술의 적용 확대; AI, Big Data, Computer, IT
 - 전통산업에 신기술 접목
- ❖ 신성장 산업은?
 - 정보통신(ICT); 정보의 전달, 데이터 활용
 - 과학기술 분야
 - 생명과학 분야; 의학, 제약, 신소재
- ❖ COVID 19 이후 이커머스시장은 급속히 증가 하고 있음



8

II. 세계경제 환경변화

5. 세계를 이끄는 기업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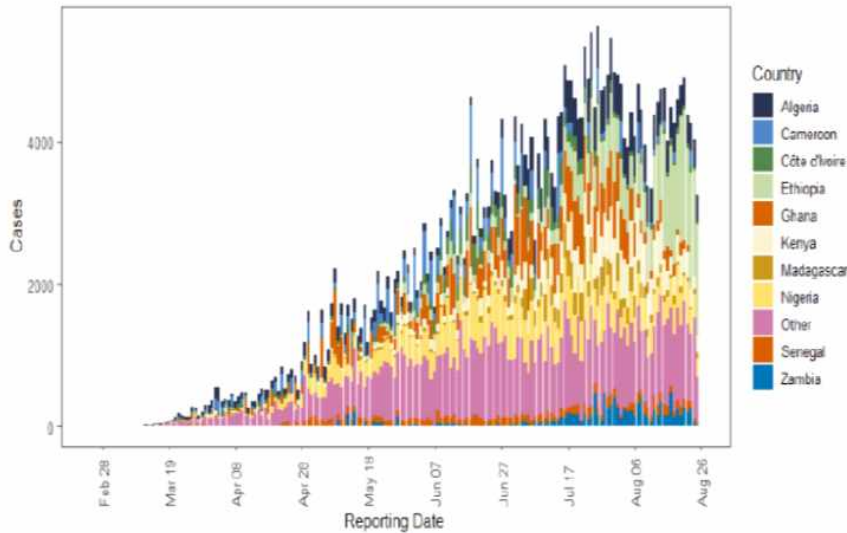
- ❖ 위의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모두 자신이 일구어낸 결과임

9

III. 코로나와 아프리카 경제

1. 코로나19 와 세계경제

- ❖ 2021년6월16일 현재 COVID-19 확진자 수: 510만명, 사망 13만6천명(WHO 보고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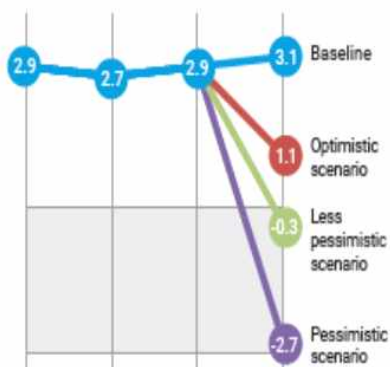
III. 코로나와 아프리카 경제

2.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 ❖ COVID-19 이후 UNECA는 3개의 시나리오별로 경제 성장을 추정
- ❖ 본래 계획 3.1% 성장에서 가장 심각한 경우 -2.7% 감소, 반곤은 3.94%, 실업률은 2.3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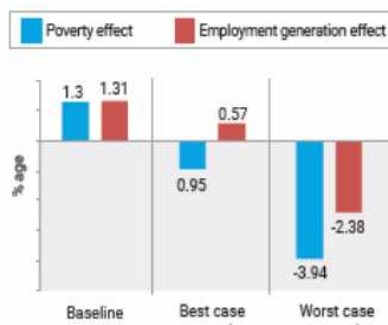
Source: UN, Impact of COVID-19 in Africa. May 2020.

Projected decline in real GDP growth



Source: ECA

Impact of growth decline on poverty and employment generation



Source: ECA

11

III. 코로나와 아프리카 경제

3. 코로나19 와 아프리카 경제

- ❖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비상구호 물품의 공급
 - 보건의료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
-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변화; 정부 재정 부족 심각
- ❖ AfCFTA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 COVID 19 disruption
 - 회원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로 무역지대관련 협의 및 발전에 제약
- ❖ 보건의료 제도, 일상 생활에 막대한 지장, 경제성장 둔화
- ❖ 무역수지 및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
 - 아프리카 국가의 2/3가 식량을 수입에 의존 (약 5,000만명이 식량 부족 현상)
- ❖ 조세 정책 전환 필요
 - 불가능한 부채상환 능력
 - 자본시장 활용의 한계
 - 외환 부족 심각

Source: OECD, 2020

12

III. 코로나와 아프리카 경제

4. 코로나19 이후 아프리카 경제

- ❖ 관광업
 - 관광업이 활성화된 국가의 경우 외화 수입 및 국내 경기에 막대한 지장 (Kenya, Tanzania, South Africa, etc.)
 - 관광분야 실업 증가
 - 글로벌 무역이 감소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새로운 형태
 - 아프리카에 진출 기회
- ❖ ICT 인프라 분야의 투자 확대(파이버옵틱, 초고속 인터넷망)
- ❖ 새로운 이커머스 시장확대 예상 (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등)

13

IV. 아프리카 경제 전망

1. 아프리카 경제 현황

- ❖ 아프리카 전체 GDP: 2.5조 달러(2017년)
 - 5,000\$이상 구매력: 9,000만명(2013), 1억2,800만명(2020)
 - 2060년: 중산층 11억 5천만명 예상
- ❖ 아프리카는 높은 인구 증가율: 증가율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남, 북부 아프리카: 2.0/1.6%;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 2.5/2.6%
 - 아프리카 전체의 평균: 2.4% (12억 이상으로 매년 2,400만명 이상 출생)
 - 풍부한 노동력(60% 이상의 인구가 30세 미만), 매년 약 2,600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음
- ❖ 아프리카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
 - 1900년, 5% 의 아프리카 인구가 도시에 거주
 - 1950년 14.7% 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했고 이는 2000년 37.2% 까지 증가하였으며 2030년 까지 54%로 증가 예측
- ❖ 아프리카의 Social overhead capital (SOC) 투자 규모
 - 아프리카는 매년 약 US\$72 billion 투자하고 있음 (McKinsey, 2010)
 - 도로와 철도에만: US\$24 billion/year
 - 도시건설과 개발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도시, 교통, 에너지, 통신, 상하수도, 물류 등 도시 인프라 건설에 많은 수요가 있음

14

IV. 아프리카 경제 전망

2. 아프리카 무역과 투자(1)

- ❖ 아프리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 1994년 이후 남아메리카 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 - 2000년 후 년평균 4.6% (아시아 개도국 7.2%, 남아메리카 2.8%)
- ❖ 아프리카의 무역 확대 및 다각화 (UNCTAD)- 2000년 2,760억 달러, 2016년 8,060억 달러, 2019년 9,979억 달러
- ❖ 아프리카에 직접투자는 지난 2010년 이후 연간 600억 달러를 넘고, 다른 지역에 투자도 2019년 454억 달러에 달함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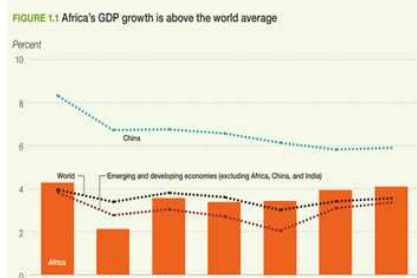


Figure B. FDI inflows, 2013-2019 (billions of dollars and per cent)



Figure C. FDI outflows, 2013-2019 (billions of dollars and per cent)



15

IV. 아프리카 경제 전망

3. 아프리카 무역과 투자(2)

- ❖ 미국의 AGOA는 아프리카 국가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세 조치(2000년 시작)
 - 아프리카 경제 발전 지원 목적
 - 6,400개 상품이 해당
 - 40개 아프리카 국가 참여
- ❖ 미국의 무역규모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무역규모는 매년 증가
- ❖ 중국의 대대적 아프리카 진출: 인프라 투자, 제조업, 소비재 상품 수출 확대
- ❖ 중국의 일대일로에 아프리카 국가들 참여
 - 케냐 (탄자니아, 남아공)
- ❖ FDI는 대부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이 차지
- ❖ 중국의 투자 규모가 확대 추세임



16

IV. 아프리카 경제 전망

4. 아프리카 주요 기업

- ❖ 아프리카의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 광업, 정보 통신이 주를 이루고 있음

금융 및 ICT 분야



Top 10 companies in Africa by Market Capitalization



Source: African Business

The African Wall Street

17

IV. 아프리카 경제 전망

5. 아프리카 의 ICT 산업

- ❖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비용 절감
- ❖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
- ❖ 이커머스 인프라 및 환경 개선
- ❖ ICT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
- ❖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노력
- ❖ ICT 분야 기업가 양성, 인큐베이터, ICT 클러스터 확대
- ❖ 온라인시장에서 2025년 까지 약 300만개의 일자리 예상



18

IV. 아프리카 경제 전망

6. 아프리카 경제의 문제점

- ❖ 현안 문제점
 - 실업자 증가(경제성장률 감소 및 4차 산업 혁명에 참여가 희박)
 - 산업화 지연
 - 기술혁신의 한계성
 - 정부의 지나친 투자관련 간섭
 - 정치적 불안정
- ❖ 아프리카 경제 미래의 불확실성
 - 세계적인 경제 및 경영환경 변화
 - 다원화 된 세계 경제(선진국, 중국, 신흥 공업국 들)에서 아프리카 지위
 - 보호무역주의 및 지역 주의
 - 자원의 높은 경제 의존도
 - COVID 19, 기후변화, 국제관계의 급변

19

1. 맺음말

- ❖ 불확실성과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 COVID 19은 불과 몇주만에, 전세계를 혼돈 속으로
 - 경제, 정치, 사회의 불확실성 증가
 -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파급효과
- ❖ 아프리카의 글로벌화는 필수
 - 아프리카 경제의 자립도가 급선무
 - 자원 및 농산물 지나친 의존도
 - 내수 시장은 소규모
- ❖ 아프리카 경제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접목
 - 2차 산업 및 3차 산업 발전에 역점
 -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

20

References

- Africa Business Inside. 2019. *China is Going Digital in Africa*. Hurumera Daily Brief, 26 November 2019.
- Bright, Jake. 2017. *e-Bay Opens U.S. Platform to Africa with MailtoAfrica.com Partnership*. Techcrunch.com
- Corrington, Cody. 2018. *For Amazon and for Africa Infrastructure Matters*. U.S. Global Leadership Coalition.
- Elliot, Roxana. 2019. *Mobile Phone Penetration Through Sub-Saharan Africa*. GeoPoll.
- Dubox, et al. 2019. *How Online Marketplaces Can Power Employment in Africa?*. BCG.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9. Top 10 Global Consumer Trends. <https://www.beveragedaily.com/Article/2019/03/28/Euromonitor-Top-10-Global-Consumer-Trends-2019>
- Financial Times. 2019. *Haspers: Africa's Softbank Looks beyond its Tencent stake*. 22 July, 2019. <https://www.ft.com/content/47b1a8fa-a7a3-11e9-b6ee-3c9f3174eb89>
- Forbes Africa. 2019. *Why now is the time to invest in Africa's E-commerce*. May 23, 2019.
- Goldstein, Ilcoisa. 2019. *The Future of E-commerce in Africa: A Mere Illusion?*. Africa.com
- GSM. 2020. GSM Intelligence. <https://www.gsmintelligence.com/>
- ITU. 2015. *International E-Commerce in Africa: The Way Forward*. Geneva, Switzerland.
- ITU. 2020. *Infrastructure Sharing in Africa*. <https://news.itu.int/a-call-for-infrastructure-sharing-in-africa/>
- KPMG. 2016. *The African Consumer and Retail*. kpmg.com/africa
- MasterCard. 2019. *Investing in Jumia*. <https://www.techcrunch.com/2019/04/09/mastercard-investing-jumia/>
- McKinsey. 2018. *Linone Go Digital*.
- Mikhael, Percy. 2017. *National Report on E-Commerce Development in South Africa*. UNIDO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Paper Series, WP18. Geneva.
- Niganga, Dennis. 2012. *E-Commerce in Africa: Challenges and Solutions*. African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5, Issue 3, 243-268.
- Nhede, Nicholas. 2019. *Power Sector in Sub-Saharan Africa*. Smart Energy International. <https://www.smart-energy.com/resources/reports-and-white-papers/power-sector-investment-in-sub-saharan-africa-to-reach-141-billion-by-2028/>
- UNICTD. 2015. *Information Economic Report*. Geneva.
- <http://www.danote.com/>
- <https://www.probus.com/about>
- <https://www.probus.com/about>

Q & A

Thank you!

제2세션 아프리카의 국제정치와 선교>

I. 아프리카 사헬(Sahel)지대의 문제 원인과 분쟁의 전망

임기대(부산외국어대학교/본학회 부회장)

II. 중국의 대 아프리카 코로나 외교관점에서.....

김윤희박사(숙명여자대학교)

III. 코로나시대 탄자니아 선교현지인 중심으로-마라나타 크리스천센터 사례 발표.....

데보라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아프리카 사헬(Sahel)지대의 문제 원인과 분쟁의 전망

임기대*

1. 들어가는 말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신흥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사헬(Sahel)⁷⁰⁾지대는 사막화의 가속화, 지속적인 가뭄 등의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70년대부터 강수량이 떨어지면서 건조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토양이 갈라지고 자연 강수량에 의존하여⁷¹⁾ 농사짓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1980년대에는 강수량이 조금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가 또 다시 사헬지대를 괴롭혔다. 이로 인해 사헬 초목 지역 경계가 크게 이동하고 삼림이 파괴되어 사막화가 진행되었다. 사헬지대에서 나무는 연료와 원자재로 사용되는 자원이자 일상에서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보호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1970~80년대를 겪으면서 그 수가 6분의 1이 감소하였고, 전체 나무 가운데 5분의 1이 완전히 사라졌다. 주 자원이 나무인 지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주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중 하나였던 차드, 니제르의 차드호(Lake Chad) 크기가 줄어들었고, 이는 농부와 어부들의 식량 감소로 이어져 생활난을 가중시켰다.⁷²⁾ 식량 감소로 인해 아이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보건 위생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게 된다. 영양실조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빈곤층이기 때문이다. 빈곤층 사람들은 예방접종 등을 맞지 못하고 지역을 떠나 이민 가거나 난민이 되었다. 다른 지역으로의 대규모 피난 혹은 이민은 또다시 질병 등을 유발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지역민을 빠져나올 수 없는 빈민으로 전락시키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⁷³⁾ 게다가 지역의 불안을 야기하는 내전과 분쟁, 그로 인한 이슬람 극단 테러집단의 활동은 지역민을 더 없이 난민으로 몰아내고, 지역민의 불평등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주민들의 생계는 각종 밀매를 활성화하였다. 마약 등의 밀매는 사헬지대 국가들의 경제 활동을 붕괴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파괴 주범이 되고 있다. 테러집단은 마약 등의 밀매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기도 한다. 기후 환경 등의 문제에 각종 밀매가 더해지고 테러집단 활동까지 지구촌 시대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다. 개별 정부의 정세 또한 불안하여 이런 여러 불안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연이어 두 번의 쿠데타가 말리에서 발생하며 이 지역이 얼마나 국가 체제가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어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보여주고 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프랑스어과 교수. 본 발표문은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연구 총서 <이주와 불평등>에 수록된 내용과 <복음과 선교> 54집에 게재된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임.

70) '사헬'지대란 일반적으로 사하라 남쪽의 '주변 지대'를 말하며, 해당 국가로는 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와 같은 프랑스어권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 이외의 국가를 합쳐 약 10개 정도가 있다. 여기서 논의하는 사헬지대 국가는 앞서 언급한 5개 국가 중심의 지역이다.

71) 사헬 지대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은 관개시설이 없이 자연 강수량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가뭄과 홍수, 지구 온난화에 그 어떤 지역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식량 부족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유일하게 자라는 것이 사바나 풀과 관목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72) 많은 사람들은 차드호 문제가 지역민들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중요한 곳으로 환경시스템과 경제개발, 그리고 지역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보존의 희망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73) *Africa Insight*, "기후변화 속의 아프리카", 2016.12.0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ubafrica&logNo=220878334154>

2. 사헬지대, 불평등과 난민의 지역

2.1. 아프리카의 '사헬'(Sahel)지대와 난민

2011년 10월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이 붕괴하면서 사헬(Sahel)지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다. 환경 파괴나 가난이라는 기존의 익숙한 이미지 이외에도 마약 거래, 납치, 난민, 테러, 불평등이라는 지구촌 시대의 문제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북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지중해, 나아가 유럽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되고 있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군사개입까지 증가되고 있다. 기존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외세의 개입까지 악재가 더해지는 공간인 셈이다. 모리타니, 말리, 니제르, 차드, 부르키나파소의 5개 사헬지대 국가는 프랑스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갖고 있고, 인구는 약 7,112만 명(2016 기준) 정도를 헤아린다. 아랍어로 '경계'라는 의미의 사헬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사막화'⁷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68년-1973년 사이 사헬지대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이 가뭄으로 인해 풀과 나무가 시들고 사료와 곡물을 재배하지 못하면서 가축과 인간이 죽어갔다. 이 당시부터 처음으로 인류에게 '사막화'라는 용어가 본격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아프리카의 사헬지대를 보다 보호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있다. 만성적인 빈곤 문제를 비롯하여 테러와 분쟁, 불법 밀매 등이 판을 치며 난민 등 그야말로 불안 요소들이 첩첩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사헬지대 북부는 전통적으로 반유목생활을 하고 남부는 농경생활을 하는 공간이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가족 단위의 목축이며, 상대적으로 오랜 문화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다. 이슬람이 들어왔지만 자신들의 오랜 토착 종교와 더불어 혼성 종교의 모습을 보인다. 식민 지배를 통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주민의 이동으로 사헬지대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열악한 자연 조건에 아프리카의 다양한 종족이 들어오다 보니 사람들 간의 충돌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이 몰려드니 삶의 거주공간이 피폐하고 생계 수단이 서로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반유목생활⁷⁵⁾과 소규모 목축업은 오랜 가뭄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까지 했다. 남부의 농경 생활을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지역까지 피해를 보면서 사막화가 가속화되었고 자연히 생태계는 파괴되었다. 그렇게 하여 사헬 지대는 사하라 사막과 더불어 세계화의 문제 중심에 있게 된다(Bruno Lecoquierre 2017: 3). 사막화는 그나마도 남아 있던 삼림 벌채가 심각해지고 인구 유입이 발생하면서 가뜰이나 좁은 농경지를 확대해야 하지만 여의치가 않았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고, 어떤 동물은 멸종하기도 했으며, 경작지 감소로 인해 사헬지대의 식량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2년 여름 사헬지대에서 초유의 식량위기가 있었다. 이 시기는 말리 내전(Mali war)⁷⁶⁾이 발생하면서 지역의 불안 요소가 급증한데다 지역민의 이동이 본격화하는 시점이기도 했다. 2012년 이전의 가뭄이 주로 니제르와 차드, 말리 등에 나타난 현상이었다면 2012년 가뭄은 사헬지대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나며 식량위기로 이어졌다. 당연히 부족한 식량에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며 이 지역으로 오자 가격은 폭등하였다. 어린 아이들의 출생률이 증가했지만 아이들은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회복력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아프리카 전형의 빈곤 문제가 이 지역에서 급증하고, 게다가 말

74) '사막화'는 토지의 생물적 잠재력의 감소 혹은 파괴로 최종적으로는 사막처럼 되는 현상을 말한다(역사교육자 협의회(2002), 『숨겨진 비밀의 역사 중동 아프리카』, 채정자 옮김, 예신. 288쪽).

75) 사헬지대는 원래 투아레그족이나 플라니 족 등이 유목생활을 했지만 이들이 정주민 혹은 반유목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이 우물을 판 지역에서는 목초량이 가축 수에 미치지 못해 우물 주변이 사막으로 변하기도 한다. 정주화와 우물 파기가 사막화의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76) 2012년 1월부터 말리 일대의 여러 불안요소가 일면서 이슬람무장단체와 투아레그 반군 등이 참여하고 말리정부군과 대결하여 벌어진 전쟁이다. 현재는 프랑스 등의 다국적 군개입이 증가하면서 더 복잡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여전히 세계의 분쟁지역이 되고 있다.

리 내전이 발생하면서 경계와 경계지대의 난민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이후로도 사헬지대를 괴롭히는 요소로 자리하게 된다. 사헬지대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목축업에 의존한다. 관개시설이 없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강수량이었다. 가뭄과 홍수,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해 보이지 않겠는가. 농작물이 잘 자랄 수가 없고 가축을 제대로 방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가장 최근인 2012년 사헬지대 가뭄으로 현재까지 사헬지역민이 겪는 식량 부족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 결과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이어지니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부의 불평등으로 빈민층은 예방접종이나 의료보건의료시설 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식량 부족은 영양실조, 식수 부족은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였다. 교육의 기회가 자연히 박탈당하면서 이 지역의 인간개발지수는 전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HDR) 중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 중 사헬지대 5개 국가의 지표는 모리타니 155위, 말리 182위, 부르키나파소 183위, 차드 184위, 니제르 187위이다⁷⁷⁾. 거의 전 세계에서 최하위 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이들이 이동하며 다른 지역에서 질병을 전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먹고살 수 없어 이웃 지역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열악한 재산을 팔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은 당연히 시킬 수가 없다. 학교에 보내느니 구걸을 하면 조금이라도 생계를 임시 처방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학교도 그만두니 당연히 주변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돈벌이를 찾아 이동한다. 사헬지대의 국경과 국경지대에 난민이 넘쳐나는 이유이다. 식량위기가 지속되는 빈곤문제, 난민 양산 등의 반복되는 문제를 양산하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빈곤 퇴치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쉽게 짐작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역 불안을 가속화하는 테러집단의 활동을 감안한다면 지역 내 불평등과 불안 문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2.2. 구조적 문제와 여러 불안요소

아프리카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헬지대에도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사하라 대상들이 서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교차로로 사용해왔다. 당시 사하라 대상들은 과거 말리 왕국의 투아레그족이 대표적이었다(김상훈 2011: 93). 말리 왕국(1235~1645)은 흑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를 잇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말리왕국의 중심에 있던 투아레그족은 이슬람을 수용하긴 했지만, 토착문화 속에 녹여 내거나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잘 보존해가며 이슬람을 믿는다. 과거 대상들의 횡단 길이었던 사헬지대가 마약과 무기 밀매지역이 되었다는 사실은 각종 테러집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알제리에서 태동한 ‘알카에다 이슬람마그레브지부’(AQIM)가 알제리를 비롯한 사하라 일대 보다 사헬지대에서 훨씬 광범위한 활동을 보인다는 것은 사헬지대가 테러 집단에게는 활동하는 데 있어 여러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⁷⁸⁾. 무엇보다 사헬지대 국가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밀매가 환경이 가능해졌다. 사헬지대의 밀매는 담배, 마약, 무기 밀매의 단계로 진행되었다(Mostéfa Khiaati, 2017). 담배 밀매는 사헬지대에서 1970년대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얻는 밀매는 정상적인 활동으로 생산 효과를 내려는 사람들을 모두 참여하게 하고 있다. 담배는 나이지리아나 니제르에서 제작된 배나 혹은 불법 공장에서 만들어져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동지역으로까지 판매된다. 심지어 이들 판매상에는 여성들도 참여하고 있다.⁷⁹⁾ 이렇게 해서 번 돈은 테러집단의 자금

77) https://fr.wikipedia.org/wiki/Liste_des_pays_par_IDH

78) 알카에다 이슬람마그레브지부(AQIM)의 창립자인 압델말렉 드룩델(Abdelmalek Droukdel, 1970~2000)을 2000년 7월 사살하긴 했지만, 그의 휘하에 있던 사헬지역 출신 지하디스트들이 세력을 더 확대해 이전 활동 무대 북아프리카에서 오히려 전선을 사헬지대로 확대해 와 지역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임기대 2020).

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때 사하라-사헬지대에서 가장 흉악한 테러리스트 벨목타르(Mokhtar Belmokhtar, 1972~)⁸⁰⁾ 또한, 담배를 통해 자신의 테러조직을 성장시키며 지역 내 최대 테러 지도자가 되기도 했다.

1990년대 알제리 내전(1992~2000) 또한 사헬지대에서의 마약 밀매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알제리 정부에 끝까지 투항하지 않은 테러리스트 상당 부분이 알제리 내 사막지대나 사하라-사헬지대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중남미 마약 카르텔은 유럽시장과 중동시장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 두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 중남미의 카르텔은 사헬지대를 이용했다. 가나와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를 거쳐 사헬지대로 들어온 상품은 알제리 남부나 튀니지, 리비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간다. 중남미의 카르텔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코카인이나 마약 또한 사헬지대를 통해 들어와 유럽으로 들어간다. 이 지역의 상품은 대개 동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를 통해 들어와 차드, 이어 내전으로 혼란한 리비아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간다. 그야말로 불법이 난장판을 이루는 장소가 된 것이다⁸¹⁾.

무기 밀매는 지역의 안보를 해치는 가장 불안한 요소이다. 특히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북아프리카 지역도 그렇지만 사헬지대는 무기밀매로 긴장감이 더하다. 무기밀매 시장에서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와 사헬지대에서 테러집단이 사용하는 온갖 종류의 무기가 거래된다. 특히나 러시아제 카라슈니코프 자동소총과 같은 무기는 알제리의 산악지대에서 테러집단이 일상적으로 지니고 다니는 무기인데, 사헬지대에서도 아주 쉽게 거래가 된다. 말리나 리비아의 군병 참고에서 직접 조달받기도 할 정도로 부패한 군과 테러집단 간의 거래도 있으며,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군병 참고에서 받아 판매하기도 한다. 영국의 비정부기구 분쟁 군비연구소(Conflict Armament Research)의 자문위원인 클로디오 그라미찌 Claudio Gramizzi는 RFI와의 인터뷰에서 “카라슈니코프 자동소총 5정 중 한 정은 코트디부아르에서 온다”⁸²⁾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의 말을 따르자면 사헬지대에서의 무기 공급이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지역을 상시 긴장 지역으로 만들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무기 밀매는 소규모 형태의 테러집단들이 외국인을 인질 삼아 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준다. 앞서 벨목타르를 언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사헬지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하디스트가 된 데에는 사하라 일대에서 외국인을 인질 삼아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고 자금을 확보해왔기 때문이다. 외국인 인질이 사헬지대에서 테러집단의 주요 활동이 되다 보니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외국인이 사헬지대를 회피한다. 외국인들의 기피는 기업을 통한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앗아가, 이들이 난민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은 테러집단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유럽행을 결심하고, 사헬지대 지역민은 물론 흑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곳이 되었다.

오늘날 사헬지대는 이런 다양한 밀매를 통해 여러 불안 요소들이 발생하며 이주자를 양산하고 있다. 필립 레이마리(2015: 26)는 아프리카를 위협하는 요소는 테러보다 각종 형태의 밀매가 더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한다.

3. 지속적인 불안요소 증가와 대안

79) 사헬 지대에서 올라 온 거래상들이 북아프리카 일대로 올라오다 사하라 일대에서 대거 체포되는 경우도 왕왕히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니제르에서 알제리 국경지대로 넘어 알코올이 든 마약을 밀거래하는 여성을 대거 검거되기도 했다. *El Watan*, “Trafic de spiritueux : Arrestation d’une jeune femme à Tamanrasset”, 2017.10.14.

80) ‘미스터 말보로’라는 별칭을 가진 벨목타르는 2013년 알제리 인 아메네스(In Amenes) 가스전 인질 사건을 주도했고,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세네갈까지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여러 번에 걸쳐 살해되었다는 보도가 서구 언론에서 흘러나오지만, 최근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임기대(2013, 2016) 참조.

81) <http://www.ladocumentationfrancaise.fr/dossiers/>

82) “Près d’une Kalachnikov sur cinq provenait de Côte d’Ivoire”, (Olivier Fourt 2016)

3.1.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불안 요소와 테러집단

아프리카의 사헬지대는 오랜 기간 테러와 마약과 같은 각종 밀매 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역의 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프랑스의 입장에서 이 지역의 안정은 프랑스가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온 외교 정책의 중요한 성과이다.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2017년 사헬연합군(Sahel G5)⁸³⁾을 창설하게 된다. 이후 여러 번의 테러집단에 의한 테러가 자행되고 프랑스 등의 다국적군이 개입하면서 지역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하지만 체감되는 안정세는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지역민의 삶은 최악으로 치닫고 지역의 안정 또한 프랑스의 발표와는 달리 여전히 사상 최악의 테러와 불법 거래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민간인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며 각종 형태의 이주 현상을 부추긴다.

코로나-19의 여파는 가뜰이나 허약한 중앙정부가 민간 영역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테러집단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말리에서 발생한 지난 두 번의 쿠데타는 이 지역의 중앙 정부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해도 해도 지속되는 중앙 정부의 부패와 통치력의 허약함으로 인해 결국 프랑스가 말리를 비롯한 사헬지대 군사 작전에서 철수하겠다고까지 밝혔다.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2014년 세르발 작전 이후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2018년 재선된 케이타(Ibrahim Boubacar Keita, 1945-) 대통령을 말리 반란군이 쿠데타로 감금하고 케이타 대통령은 자진 사퇴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말리는 비난을 받았다. 쿠데타 세력은 임시과도정부를 구성하면서 안정되는 분위기였지만 지난 5월 25일 부통령이었던 아시미 고이타(Assimi Goita 1983-) 대통령이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급기야 프랑스는 군사 개입을 철회하고 바르칸(Barkhane) 작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Frédéric Bobin 2021). 사헬지역은 또한 프랑스와 영국의 오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형성된 종족 간 갈등, 독립은 했지만 기득권 종족의 차별과 부의 불평등 배분 등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런 식의 구조적인 문제가 뿌리 깊은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헬지대부터 서아프리카의 기니만 일대까지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게다가 사헬지대의 테러집단은 기니만으로 내려와 활동하면서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과 대립하거나 연대하며 부르키나파소, 가나, 토고, 베냉까지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임기대 2020b).

이렇듯 사헬지대는 각종 밀매, 가난, 이주, 정국 불안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지역 내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집단의 활동은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케 하는 주원인이다. 세계화시대 과거와는 달리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오히려 테러집단에 환호하는 것도 이 지역의 특이한 현상이다. 교육 기회의 박탈과 일자리 보장 등이 사라진 마당에 공권력이 희망을 주지 못하자 젊은이들이 대거 테러집단에 가입하거나 각종 밀매, 혹은 지중해로의 이주를 택하면서 지역 문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Lim Gi-dae & Kim Kwang-su 2017).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에서 연일 반 프랑스 시위가 열리는 것은 얼마나 프랑스의 개입이 지역민을 허탈하게 했는지를 보여준다.

사헬지대 인구는 젊은 층 비율이 상당히 높다. 45~55% 정도가 14세 미만이고, 평균 기대 수명은 55~60세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60세)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차드의 경우는 49세로 가장 기대 수명이 더욱 낮다. 이 지역의 출생률은 여전히 높고 여성 당 평균 5~6명의 아이를 출산한다. 2050년경 사헬지대의 5개국 인구는 현재보다 약 3배 정도가 증가하는 2억여 명을 예상한다(John F. May, Jean-Pierre Guengant et Thomas R. Brooke 2015). 이와 같은 인구 증가는 한정된 농경 지역 인구를 도시로 빠르게 이동시킬 것이다. 도시에서의 일자리 부족은 실업률과 도시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문맹률 증가는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서도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테러집단의 가입과 불안이 지역 내 불평등의 문제를 얼마나 더 확장해갈지, 그로 인해 지역민이

83) 해당 국가는 본고에서 언급하는 사헬지대 5개국, 모리타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가 해당된다.

이주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프랑스 등의 외부 개입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던가.

3.2. 프랑스와 다국적군 개입

지역 내의 불안 요소를 척결하기 위해 끊임 없이 군개입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2013년 세르발(Serval) 작전을 시작으로, 2017년 <사헬 연합군>(Sahel G5)을 창설하였다. 특히 현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이후 프랑스의 군 개입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사헬지대에서 확연히 눈에 띈다. 현재 군의 철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이후 불과 얼마전까지 사헬지대 및 북아프리카 방문 일지를 보면 프랑스가 얼마나 이곳에 공을 들여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표1.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서·북부아프리카 방문 일지⁸⁴⁾

시기	방문국가	내용
2017.05.14	말리	말리 북부 가오(Gao)방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분쟁지역 말리를 선택
2017.07.02	말리	사헬 연합군 정상회담. 지역 내 테러 격퇴 의지 피력
2017.11.28	부르키나파소	세파프랑(CFA)의 논쟁 및 분쟁 야기하는 독재자 지원 종결 등 논의
2017.11.29	코트디부아르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연합(AU) 간의 정상회담 개최. 사헬지대의 테러리즘에 대한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조 방안 역설
2017.11.30	가나	프랑스 대통령으로 사상 첫 방문. 가나에서 프랑스어의 보급 확산 역설
2017.12.22	니제르	테러 척결을 위한 군사협력 강화와 이주 문제 대책
2017.12.06	알제리	알제리 식민지배에 대한 과거사보다 새로운 파트너십 강화 문제 논의, 사헬지대와 리비아 문제 논의
2018.01.31	튀니지	튀니지에 대한 경제 지원 및 안보, 불법 이주민 문제 논의
2018.02.01	세네갈	4개 분야에서 경제협력 방안 논의. 세계 교육 정상회담 참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상 참여
2018.07.02	모리타니아	AU 정상회의의 참가. 사헬지역에서 프랑스-모리타니 간 협력 공조 재확인
2018.07.04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에 대한 대응 방안과 비즈니스(석유, 가스, 시멘트, 전기 등) 포럼 개최, 알리앙스 프랑세즈 개원 등
2018.11.15	모로코	모로코 TGV(탕헤르-카사블랑카개통식 참석. 불법 이민자 및 사헬지대 상황 공조 확인
2019.01.27	이집트	대규모 경제문화사절단, 4명의 장관과 4일 동안 공식 방문. 경제 및 인권 문제, 리비아 안보 문제 등 논의
2019.12.20	코트디부아르	사헬지대 안정과 2020년 대선을 앞둔 코트디부아르에서 양국 관계 확인. 세파 프랑의 개혁 논의 등
2020.02.12	모로코	양국 관계 강화 및 TGV연장선 논의
2020.06.30	모리타니아	사헬지대의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대응 방안 논의
2021.02.	차드	사헬지대 특수부대 타쿠바'(Takuba) 발족 및 다국적 군 결성

2013년 1월 프랑스는 일명 ‘세르발 작전’(Serval operation)이라는 명분으로 말리 내전에 개입하였다. 말리 정부를 지지한 프랑스는 총 4,000여명의 프랑스군을 파견하였고, 프랑스와 말리연합군은 대부분의 말리 북부 영토를 회복했다. 이 작전 수행을 위해 국제사회도 프랑스의 개입을 적극 환영하였

84) 표1의 방문일지는 마크롱 대통령의 서북부 아프리카 순방과만 관련된다. 위에 언급한 아프리카 국가들 지도자의 프랑스 순방도 거의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아프리카와 프랑스의 관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다. 특히 아프리카연합(AU)은 회원국 차원에서 프랑스를 적극 지원했다. 알제리는 사상 처음으로 자국의 영해를 개방하기도 했다. 서방국가들도 프랑스의 개입을 환영했지만, 이슬람테러집단의 반발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의 수시 방문⁸⁵⁾과 프랑스의 적극적인 군개입으로 인해 말리 상황은 호전되는 듯 했지만, 이후 상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테러집단에 새로운 테러집단까지 가세하면서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해도 그다지 만연하지 않은 사헬지대 불안 요소가 프랑스의 군개입 이후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든 것이다. 테러집단의 활동은 이제 단순히 북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말리를 중심으로 사헬지대 전역으로 확장하는 추세이다. 특히 이슬람무슬림지지그룹(GSIM)이나 대사하라 이슬람국가(État islamique au Grand Sahara, EIGS)의 활동은 지역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은 때로는 협조 관계이기도 하지만 상호 경쟁관계에서 지역의 패권을 겨루고 있다⁸⁶⁾.

2017년 7월 창설된 사헬연합군(Sahel G5)의 목적은 사헬지대 5개국의 국경지대 치안 유지 활동에 주력하고 테러집단 퇴치, 마약과 각종 밀매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적어도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기도 했지만, 워낙 지역 상황이 좋지 않고 국제사회 또한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헬연합군의 활동에 적극 공조하는 분위기였다. 사헬연합군이 창설되자 유럽연합(EU)은 곧바로 5억 유로를 공동군 창설을 위해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프랑스 또한 사헬지대 주둔군(Barkhane)을 철수시키지 않고 주둔군을 통해 사헬연합군에 군사 고문, 공동 작전 수행 및 장비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또한 같은 해 말리주둔유엔평화유지군(MINUSMA)⁸⁷⁾의 활동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만장일치 의견을 모았다(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64). 아프리카연합(AU) 또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군 파병에 동의하였고, 프랑스는 현재 총 5,000명 정도를 파병해놓은 상태이다.

프랑스는 2020년 1월 프랑스의 포(Pau)⁸⁸⁾ 정상회담 이후에는 600명을 추가 파병했다. 2021년 2월 차드에서 개최된 사헬연합군 정상회담에서도 프랑스는 자신들의 개입이 국제사회와의 전폭적인 공조하에 진행되는 것이라 했다. 그 결과 유럽연합국을 사헬지대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바르칸 작전은 이제 프랑스 단독이 아닌 에스토니아, 체코, 스웨덴 등의 7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특수 부대 '타쿠바'(Takuba)를 발족시켰다⁸⁹⁾. 이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가 사헬지대에서 테러집단을 궤멸할 수 있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프랑스는 2020년 6월 3일 알카에다 이슬람마그레브지부(AQMI) 창시자인 압델말렉 드룩델(Abdelmadek Droukdel)과 군사행동 지도자 말리 안바 아그 무사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2021년 들어 100명 이상의 테러리스트를 사살했고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를 체포하기도 했다는 평가를 했다. 2021년 전까지 말리 군부대가 기습을 당하거나 하였지만 아직은 이런 일련의 강한 진압 작전 덕분에 테러집단의 군부대 공격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집단이 장갑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성공한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가장 최근 말리 군부대를 테러집단이 급습하여 군인 3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⁹⁰⁾, 니제르에서는 말리와의 국경지대 마을에서 이슬람무장단체의 급습으로

85) 프랑스의 대통령 방문에다 외무장관, 국방장관, 경찰청장 등의 방문까지 더해지면서 이 지역에 얼마나 프랑스가 공을 들이는지를 알 수가 있다.

86) *The National Interest*, "Why is terrorism rising in West Africa?", 2020.03.16.

87) UN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말리주둔유엔평화유지군(minusma)은 15,000명의 직원으로 되어 있다. 구성은 군인 12,169명, 경찰 1,741명, 민간인 1,180명이다.

88) 스페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키텐 지역의 읍(commune)이다. 약 8만 명의 인구가 있다.

89) 이와 같은 파병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결국 프랑스가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라 비판했다. 독일, 영국, 스페인은 파병에 반대하였다.

90) 2021년 3월 17일 말리와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접경지역인 안송고(Ansongo)에서 31명 이상의 이슬람 테러집단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시점에서 테러집단의 공격으로 다시 한 번 프랑스와 사헬연합군의 공조가 도마에 올려졌다.

주민 6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⁹¹⁾. 불과 1주일 사이 니제르와 말리, 부르키나파소 접경 사이에서 59명이 사망하면서 여전히 지역 내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프랑스 내에서 연이은 프랑스 사망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군 철수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급기야 말리에서 두 번의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사헬지역 안정은 요원해지고 프랑스 또한 이 지역에서 군 철수를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3.3. 지역기구들과 거버넌스의 문제

이런 열악한 사헬지대에는 여러 비정부 국제원조기구들과 지역 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지역의 문제를 두고 여러 협의체가 구성되었음에도 갈수록 지원액은 줄고 있다. 예를 들어 <융합과 연대 연합>(Unité de Fusion et de Liaison, UFL)⁹²⁾은 2010년 4월 알제리,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리비아, 차드 외무장관이 모여 결성한 기구이다. 사헬지대의 테러집단과 중남미에서 들어온 마약 등의 밀매 방지를 위해 7개 국가가 공조 체제를 갖추자는 의도에서 결성되었다. 같은 해 <공동작전참모본부 위원회>(comité d'état-major opérationnel conjoint, CEMOC) 또한 알제리,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를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알제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⁹³⁾ UFL이 외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결성한 데 반해 CEMOC은 국방장관 중심으로 결성하여 지역 안보의 실질적 행동을 결의하고자 만든 조직체이다. 지역 기구를 언급할 때 가장 큰 기구는 단연 <사헬-사하라국가공동체>(Communauté des États sahélo-sahariens, CEN-SAD)이다. 이 기구는 아프리카 29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성격을 띠며 1998년 리비아의 가다피 주도로 결성되었다. 테러 및 마약 퇴치에만 그치지 않고 해당 국가들의 경제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었다(권유경 외 2016: 191-199). 가장 최근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헬연합군이 결성되었지만 지역 안정은 더욱 요원하다. 어쨌든 사헬지대 국가들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와 같은 기구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잘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상황이 극단적인 경우에 이르면 해당 지역 내의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의 개입을 원한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의 개입은 잠시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항구적 안정장치는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말리 내전에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보아왔다. 말리 내전은 프랑스군을 개입시키면서 테러집단을 박멸하기보다 권력자들이 프랑스군 개입을 빌어 정권 유지에 활용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말리에서 테러집단의 활동을 보면 안정을 회복하기보다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역 단위의 권력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매번 체결한 휴전 협정은 무용지물이 되곤 한다. 이곳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엔평화유지군 <유엔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Mission Multidimensionnelle Intégrée des Nations Unies pour la Stabilisation au Mali, MINUSMA)가 활동하고 있지만, 생각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테러집단의 공격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⁹⁴⁾ 이와 같은 테러활동으로 국제사회가 지탄을 하고 군을 개입시키지만, 테러활동은 위축되지 않고 권력자들은 자신들만의 틀 속에서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는 역설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의 안보에 대한 통제능력은 상실되고

특히 안송고는 알카에다와 IS가 서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다. AFP, "Mali: Plus de 30 soldats maliens tués dans l'attaque présumée djihadiste la plus meurtrière en 2021", 2021.03.17.

91) 2021년 3월 15일 66명이 살해되고, 1주 지난 3월 22일 6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이제 말리와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의 접경지대는 가장 불안한 지역이 되고, 난민이 이주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RFI, "Death toll from raids on Niger-Mali border area rises to over 150", 2021.03.22.

92) <http://www.djazairess.com/fr/letemps/64567>

93)

<http://www.recherches-sur-le-terrorisme.com/Documentsterrorisme/lutte-anti-terrorisme-sahel-cemoc-algerie.html>

94) 예를 들어 2016년 2월 MINUSMA대원 6명이 테러집단에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5명이 테러집단에 의해 살해되었고, 2015년 11월에는 로켓포 테러로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테러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2013년과 2014년은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 말리의 투아레그 반란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https://fr.wikipedia.org/wiki/R%C3%A9bellion_touar%C3%A8gue_de_2006 참조.

빈번한 쿠데타는 여러 평화협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흔히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언급할 때 경제 성장을 주목하면서도 늘 하나로 묶는 공통분모가 있다. 가난과 부패, 질병 발생률, 공공기반시설 부족, 기복이 심한 경제지표, 정치적 불안정, 내전, 젠더의 불평등 등이다(Dambisa Moyo 2009: 11).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보는 현상들이지만 유독 사헬지대가 심해 보인다. 그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중앙정부와 거버넌스(Governance)가 그 어떤 지역보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내전도 그렇지만 각종 밀매가 지역의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기구나 자원봉사단체 등에 의해 지원되었지만 결국 독재자를 지원하는 사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하나의 사례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해당 주민이 아닌 장기 집권 독재자의 배만 불렀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패로 독재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한이나 공적 서비스 기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켜서 경제발전을 악화시켰다. 급기야 많은 아프리카연합(UA)⁹⁵⁾을 비롯한 국제 감시 기구 등이 원조 지원금에 대한 감시 체제를 이루면서 어느 정도 부패를 줄여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헬지대의 경우는 원조도, 부패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 식민 지배국인 프랑스의 영향력이 배가되면서 기득권층의 독점이 커지거나, 부족 간 이해관계로 인한 족벌 체제가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인지 테러집단의 분화 양상 등이 부족의 영향력과 지역 토호 세력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프랑스와 같은 외세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어 끝없는 대립 양상을 보인다. 심지어 NGO 차원의 교육과 식량, 환경 지원 등의 일에서도 손을 뗄 것을 주장한다. 이런 상황은 거버넌스의 존재감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지역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4. 나가면서

기후 환경 파괴로 인한 사막화와 밀매 등으로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말리 내전까지 겹치며 사헬지대는 프랑스의 군개입이 줄지 않고 있다.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황폐화를 막아야 하지만 밀매와 테러집단의 확산은 오히려 이 지역의 안정화라는 명분하에 프랑스의 또 다른 개입을 가능케 하였다. 마크롱 대통령 당선 후인 2017년 7월 사헬 연합군(Sahel G5)을 창설하여 이 지역에서 프랑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다. 2021년 2월에는 다국적군인 '타쿠바'를 창설하여 지역에서의 군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후와 사막화의 가속화, 각종 밀매, 테러와 분쟁, 불평등과 난민 등의 문제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프랑스의 군 개입은 과거 프랑사프리카(Françafrique)의 명성을 되찾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힘에 의한 개입은 또 다른 분쟁을 낳고, 그나마 있는 거버넌스의 존재감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종족 간 대화와 타협과 심지어 테러집단과의 대화, 군사개입 자제, 거버넌스의 활성화 모색 등이 아프리카 사헬지대에 절실한 것들이 아닐 듯 싶다. 게다가 지역 경제의 토양을 붕괴시킬 각종 밀매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과 경제 복원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헬지대 내의 구조적 문제와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5) 아프리카연합은 개발 원조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국제연합(UN)과 보조를 맞춰 강조하고, 원조를 받는 수원국들은 재정의 투명성, 법치주의, 부패 방지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빈곤 탈피와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발전 전략인 'Agenda 2063'에 부패가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반영하였다. UHIC, "모두가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 거버넌스란?". 2017.04.28. <http://uhic.tistory.com/459>

참고문헌

- Bruno Lecoquierre(2017), «Le Sahara: un désert mondialisé», in Documentation photographique 7/8,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Camps, Gabriel(2007). *Les BERBERES : Mémoire et identité*, Actes Sud, Arles. France.
- Dambisa Moyo(2009), *Dead Aid: Why Aid Is Not Working and How There Is a Better Way for Africa*, Farrar, New York, Straus and Giroux.
- Frédéric Bobin(2021), «L'Algérie veut restaurer son rôle de puissance régionale», *Le Monde* 2021.06.12.
- John F. May, Jean-Pierre Guengant et Thomas R. Brooke(2015), «Défis démographiques du Sahel»,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Lim Gi-dae & Kim Kwang-su(2017), «A Study on the Recent Situation and Reorganization Process of Terrorist Groups in Maghreb and Sahara», *Korean Association of African Studies* 51, pp.103-144.
- Mostéfa Khiati(2017), «La question humanitaire au Sahara-Sahel»,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enter of Global Area Studies* i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7.11.16.
- Olivier Fourt(2016), «cartographie la circulation des armes dans le Sahel», RFI, 2016.11.16.
- Vermeren, Pierre(2010). *Maghreb: Les Origines de la révolution démocratique*, Pluriel.
- Conseil des droits de l'homme de ONU(2012), «Rapport de la Haut-Commissaire des Nations Unies aux droits de l'homme sur la situation des droits de l'homme au Mali», 2012, 01.07, p. 1-20.
- 권유경 외(2016), 『아프리카 지역기구 현황과 이슈』,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 김상훈(2011), 『외우지 않고 통으로 이해하는 통아프리카사』, 다산 에듀.
- 로마노 프로디(2015), 「차드호 보존의 희망」,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월호, 8쪽.
- 역사교육자 협의회(2002), 『숨겨진 비밀의 역사 중동 아프리카』, 채정자 옮김, 예신.
- 임기대(2016), 「‘알무라비툰’을 통해 본 마그레브 테러집단 간 대결 양상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 연구』 제 18집,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29-60쪽.
- 임기대(2020a), 「압델말렉 드룩델의 사망 이후 마그레 사하라-사헬지대에서의 테러집단과 프랑스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화연구』 제 46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187-214쪽.
- 임기대(2020b), 「기니만의 구조적 문제와 안보 정세 분석」, 『2020년 외교부정책연구용역과제』.
- 장태상(2017), 「18~19세기 플라니(fULANI)족의 성전과 플라니 국가」,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 50집, 139-181쪽.
- 필립 레이마르크(2015), 「아프리카에도 평화의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월호, 26-27쪽.

언론

- Africa Insight*, “기후변화 속의 아프리카”, 2016.12.05. (검색일 2020.12.14)
- African Manager*, “Tunis : L’Algérie met en garde contre une intervention étrangère en Afrique du Nord”, 2015.12.01. (검색일 2019.12.14)
- El Watan*, “Depuis la signature de l’accord de paix, l’insécurité s’élargit à d’autres localités du Mali”, 2017.07.25. 국제면 12-13쪽

France 24, “Les Touareg du MNLA prêts à aider l'armée française à lutter contre les djihadistes”, 2013.01.14 (검색일 2020.03.18)

Jeune Afrique, “Mali : le président Emmanuel Macron se rend en chef de guerre à Gao”, 2017.05.18.(검색일 2020.09.10.)

Le Monde Afrique, “Une nouvelle résolution onusienne pour sauver l'accord de paix au Mali”, 2017.09.22.(검색일 2020.10.11.)

The National Interest, “Why is terrorism rising in West Africa?”, 2020.03.16.(검색일 2021.02.21.)

UHC, “모두가 주체가 되기 위한 노력, 거버넌스란?”. 2017.04.28. (검색일 20.7.28.)



중국의 대 아프리카 코로나 외교: 공공외교 관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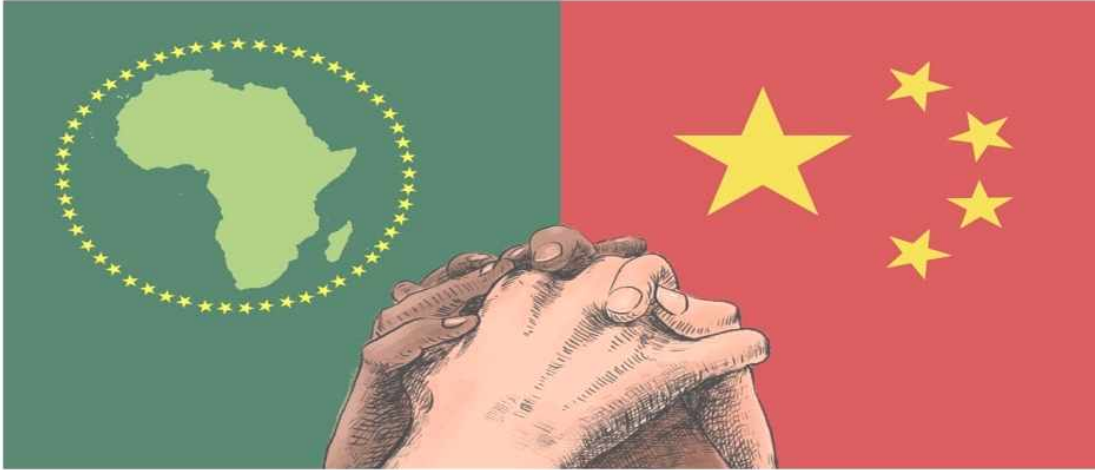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김윤희



INDEX

- 01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
- 02 중국의 공공외교
- 03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의 대 아프리카 코로나 외교

-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
 - 1950년대부터 시작
 - (역사적 관점) 명나라 정허 장군의 선단이 동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일대를 처음 도착, (현재의 관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반둥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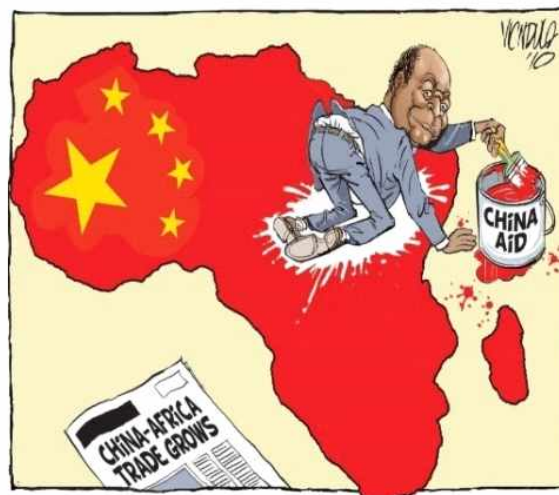


- 그 첫번째 단계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과 아프리카 관계가 정치적 목적이 강했을 시기,
- 그 다음 단계는 1990년대 중 반 이후부터 2010년 이전까지로서 이전과는 다르게 대내외 정치관계가 안정되고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경제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
-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2010년대부터 그 이후로서 이 시기는 중국과 아프리카가 발전한 경제적 관계만큼 새롭게 고려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기 시작

- 일본 (1993): 동경아프리카국제회의(TICAD)
- 중국 (2000):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 한국 (2006):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



중국과 아프리카는 원-원 관계? 아니면 신식민지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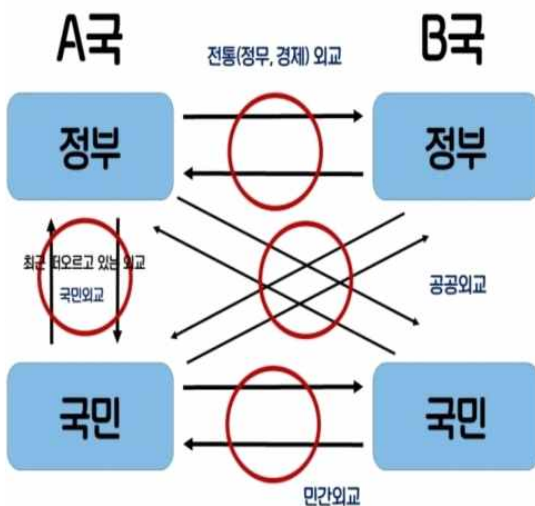


중국의 일대일로 그리고 아프리카



- 신시대 중국 국제발전 협력 백서 (2021, 01)를 통해 '중국의 세계평화 건설자와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할 것', '각국의 단결, 협력, 상생 등 동반자 관계를 발전' 그리고 '중국의 역할 중요성' 강조
- 2021년 1월 아프리카 방문시 왕이 외교부장 - "코로나19 방제 공동대응 및 중대 협력 사업 가속화, 일대일로 추진, 국제 사회에서 협력 강화 등에 합의"

공공외교란?



-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칭함
- 정부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외국 대중(Foreign Public)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공공외교의 기본 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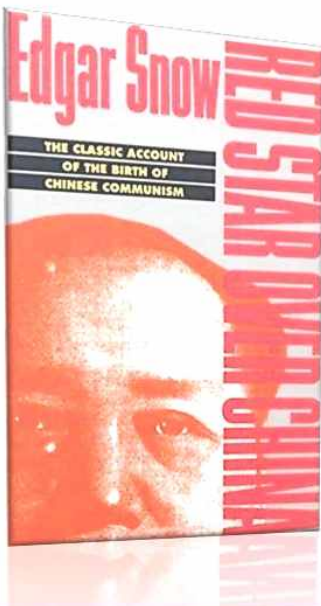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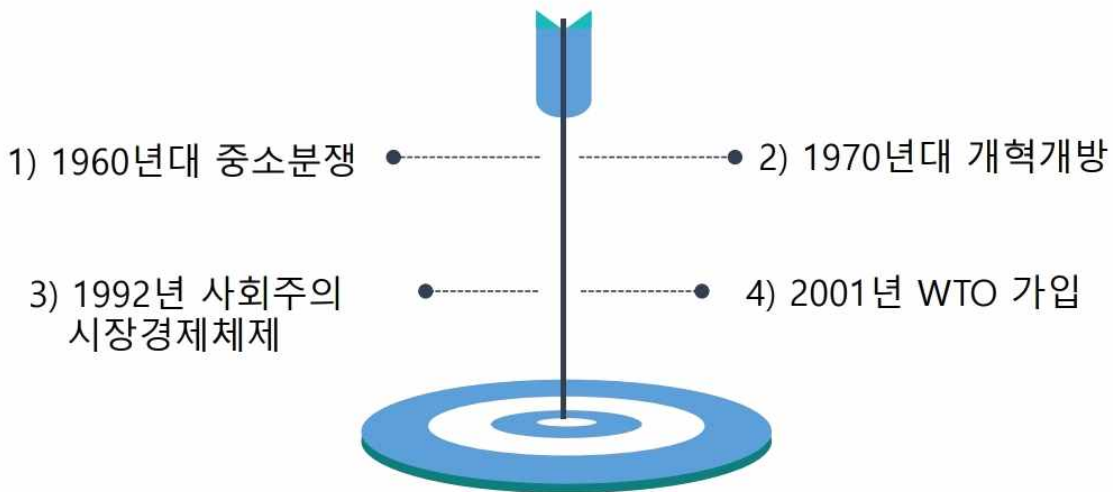


중국과 공공외교

-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 - '중국위협론' 혹은 '중국붕괴론' 불식을 위해 '신안보관(New Security Concept)(1996)'과 '화평굴기론(Peaceful Development)(2003)'을 제시하고,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중국문화를 활용한 소프트파워 전략을 구사
- 공공외교 목표: 소통 및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이미지를 수립 및 적극적으로 외교적 발언권과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
- 후진타오 - 공공외교를 외교정책의 기조
 - 2004년 외 교부 내에 신문사(新聞司) 산하의 공공외교처를 설립
 - 2009년에는 '공중외교처'를 '공공외교 판공실'로 승격
 - 2010년 9월에는 외교부 산하에 '공공외교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기구를 확충하였다.



- 시진핑 시기,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 21세기 첫 20년이 중국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임을 명시, 세계 전략 속에서 다각적으로 추진 중
- 공공 외교 -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 (중국 스타일, 중국특색, 그리고 중국기세)를 바탕으로 중국식 세계질서를 수립하고자 노력
- 중국의 대국외교(미-중관계), 개도국외교(아프리카 등의 안보, 경제, 군사 등), 주변외교 (일대일로, 운명공동체), 다자외교(국제기구 및 다자기구)



- 1937년 미국 저널리스트 에드가 스노우 (Edgar Snow)가 마오쩌둥 및 주요 정치 핵심 인물 인터뷰 후 '중국의 붉은 별'을 출판, 전 세계의 20개 언어로 번역
- 중일 전쟁, 중국의 공산주의 배경, 홍군 등





- 핑퐁외교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처음으로 1971년 미국 탁구선수단 15명과 기자 4명 중국 방문
- 1979년 미-중 수교



중국과 대 아프리카 코로나 외교



"20년전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은 베이징에서 만나 중국아프리카협력 제1회 포럼을 열었고 이로써 중국-아프리카 관계의 서막을 펼쳤다"

"20년간 포럼은 평화와 발전, 협력의 시대흐름을 따르면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이끌고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모범이 되었고 호혜상생의 본보기가 되었다"

"단결을 강화하고 보다 밀접한 중국아프리카운명공동체를 구축,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아프리카보건공동체 구축, 호혜상생으로 중국아프리카발전공동체 구축, 과감히 중임을 맡아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

중국과 대 아프리카 코로나 외교



- 2021. 5. 20: 중국은 아프리카 40개국에 자국산 백신을 제공 발표
 - 지난 2월, 아프리카 최초로 짐바브웨 자국 백신 지원
- 2021. 5. 28: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남아공 방문시 아프리카 전역의 백신접종 가속화 협력 뜻 밝힘
- 닛케이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에 백신을 지원하는 것은 인구 증대에 따른 거대 경제권으로의 성장이 전망되는 아프리카와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 올리고 싶다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

중국과 대 아프리카 코로나 외교

- 침체된 아프리카 경제 회복 지원과 일대일로 강화
 - 현재 총 46개국 양해각서 체결 (콩고민주공화국, 보츠와나)
 - 일대일로 사업 핵심 대상국과의 협력 강화 (에티오피아 및 탄자니아 사례)
- G20들과 함께 채무상환 기간을 올해 7월까지 유예
 - 일대일로 사업을 통한 아프리카 경제불황 극복
- 아프리카를 통한 다자적 국제질서 구축 및 국제무대에서의 지지세력 유지



코로나시대 탄자니아 선교 현지인 중심으로

마라나타 크리스천 센터 사례 발표.

데보라
(주한 탄자니아대사관 직원)

목차

- ▶ 탄자니아 소개.
- ▶ 아루샤지역 소개.
- ▶ 마라나타 크리스천 센터 사례 발표.
 - 교회 사역.
 - 학교 사역.
 - 목사님들 양성 사역.
 - 지교 사역.
 - 아프리카 주변 나라들 선교 사역.
- ▶ 결론.

Karibu Tanza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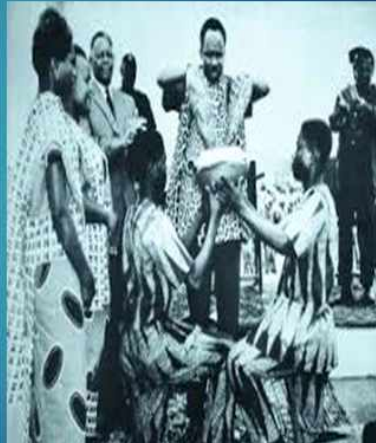
탄자니아 환영합니다.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탄자니아 정식 명칭은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Jamuhuri ya Muungano wa Tanzania.



- ▶ 탄자니아는 본토에 위치한 탕가니카공화국과 잔지바르인민공화국(운구자섬과 펴바섬)이 합병되어 탄생한 국가이다.
- ▶ 탕가니카와 잔지바르는 1964년 4월 26일에 합병되어 현재의 탄자니아 합중국이 되었다.
- ▶ 탕가니카는 1961년 12월에 영국 보호령으로부터 독립하였고
- ▶ 잔지바르는 1964년 1월 12일 잔지바르 혁명을 통하여 오만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탄자니아 소개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두 나라 식민으로 부터 독립

- 탕가니카 (Dec 1961)
- 잔지바르 혁명 (Dec 1963)
- 탕가니카 와 잔지바르 현합식 1964



수도	도도마
무역 도시	다르에살렘
공식 언어	스와힐리어
면적	945,203km ²
인구	610만명.
화폐	탄자니아 시링
위치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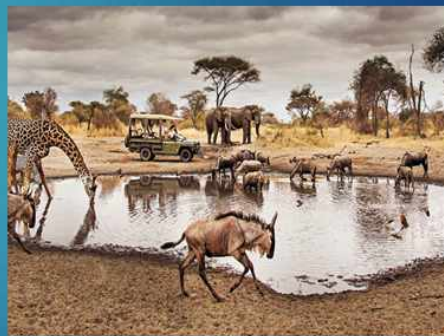
탄자니아 면적
937,062 sq km
동아프리카 제일 큰
나라입니다.

탄자니아 현재 대통령



탄자니아 유명한 명소는

- ▶ 키리만자로 산 아프리카 가장 높은산.
- ▶ 세렝게티 동물 왕국.



▶ 잔지바르 섬



▶ 키투로 공립 공원



탄자니아 유명한것들이

▶ 탄자니아 커피



▶ 케슈넛



▶ 탄자니아트



▶ Tinga Tinga 예술 작품.



탄자니아 & 대한민국 외교적인 관계.

- ▶ 1992 년도 외교 관계수교하여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생기고.
- ▶ 2018년도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 개소했습니다.
- ▶ 2018년 1월 탄자니아 외교부 장관 대한민국 방문했습니다.
- ▶ 2018년 7월 대한민국 공무원 탄자니아 방문했습니다.

탄자니아 경제



- ▶ 탄자니아의 실질 GDP는 지난 10년간 평균 7%씩 성장했다.
- ▶ 2020년 예상 GDP 성장률을 당초 6.9% 에서 5.5%로 하향 조정했다.
- ▶ 탄자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0월 소비자 물가지수(CPI) 성장률은 전년대비 3.1%로 전월 대비 안정적이었으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 등으로 2021년 인플레이션은 3%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단계별 탄자니아 개발 비전 목표

분야	2015	2020	2025
경제성장률(%)	7.0	10.0	10.3
물가상승률(%)	5.1	5.0	5.0
항구 물류 소화량(백만톤/연)	15.4	28	84
전력생산량(MW)	1,501	4,915	10,000
산업 부문 성장률(%)	9.1	10.6	10.5
산업 부문 GDP 차지율(%)	21.1	23.7	25.0
산업 부문 총 수출량 대비(%)	27.1	27.5	31.1

통합 산업 개발 전략 목표

분야	목표
제조업 분야 성장률	연 평균 15%
제조업 분야 GDP 차지율	2010년 9.0% → 2025년 23%
제조업 분야 부가가치	2010년 18억 달러 → 2025년 168억 달러

탄자니아 경제 변화

- ▶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화 목표
 - 탄자니아 개발비전, 통합 산업 개발 전략 하에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화 목표
 -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SPZs).
- ▶ 탄자니아 관광업 실업자 증가 /외환 수입 감소.
- ▶ 온라인 사업 올고
- ▶ 온라인 거래 증가하고 이
- ▶ 앞으로산업 & ICT 투자할 예정

탄자니아 코로나 상황

- ▶ 탄자니아 본토 정부는 4.29(수), 잔지바르 자치정부는 5.7(목)을 마지막으로(확진자 509명, 사망자 21명) 탄자니아의 코로나19 감염 현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 ▶ 2021년 5월 4일 코로나19 제한조치를 정부 발표했다
- ▶ 현재는 사람들이 조심하면서 케 확진자 늘어지 않고 있습니다.

아루샤 지역 소개

- ▶ 아루샤지역 탄자니아 동북쪽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관광지가려면 꼭 아루샤지역 들려야합니다.
- ▶ 아루샤는 90년도에 동아프리카 유엔 채판서 있었습니다.
- ▶ 아루샤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마사이 부족, 아루샤부족, 메루 부족 그외 여러지역에서 이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그리스천 센터

▶ 주여 사역

- ▶ 교회 사역
- ▶ 미전도 부족 전도 와 교회 개척 현재 38곳 계획
- ▶ 교육 사역
- ▶ 목회자 양성 사역
- ▶ 아프리카 주변 나라 선교 사역.

- ▶ 마라나타 그리스찬 센터는 1989년도 메루 초등학교 교실 예배 시작하였습니다.
- ▶ 1998년 부터 2021년 지교회 국내 40교회 계획 해외 주변 나라들 20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 ▶ 한국 BEE 프로그램통해서 개척 교회 목회자 신학 교육 또는 목회자들이 양성.

현재 미안진이 지역



지교회 한국 교회 협력 건축 지원.



지교회 새우는 사역



마라나타 미션 스쿨

- ❖ 탄자니아 교육 시스템.
- ▶ 탄자니아 초등학교 초 1학년-7학년
- ▶ 중학교는 중 1부터-중 4까지
- ▶ 고등학교 과정 2년
- ▶ 대학교 과정 3년.
- ▶ 마라나타학교는 2001년도 설립되었다.



백석 대학교 교육 단기 선교팀.



- ▶ 지교회 방문
- ▶ 노방전도
- ▶ 방과후 Sunday School
- ▶ 가정심방

백석 대학교 단기 선교팀





교육 사역



방가후



Asanteni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미래학회 임원 명단(2021)

자문위원회

신인호(AFA 부회장), 이진상(뉴욕주립대), 진미정(AFA), 백성철(코트디부아르), 김요한(A-PEN이사장), 이강호(부산.사라의병원이사장), 박혜경(CA), 박종근(안양대전신대원장), 이대형(토고.아미나 부사장), 최병락(서울벨엘교회), Potjane Mainpante(태국ILS SCHOOL), 윤용수(부산외대), 김윤진 교수(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정서(한국복지전략연구소 이사장), 이경하(R플러스 치과 원장), 다사랑공동체(성재호 대표), 변순복(백석대학교), 이용태(백석대학교)

상임이사회

- ☐ 회장 : 장훈태(백석대)
- ☐ 부회장 : 황규득(한국외대), 임기대(부산외대)
- ☐ 총무이사 : 김윤희(숙명여대), 최유석(백석대)
- ☐ 학술이사 : 임정혜(조선대), 강지훈(부산외대)
- ☐ 대외협력이사 : 김현주(단국대), 이현주(I-GOODNEWS)
- ☐ 재무이사 : 윤혜경(주안대), 이광주(연세대)
- ☐ 섭외이사 : 베텔(한국외대), 백명식(따뜻한공동체)
- ☐ 사무이사 : 맹미영(ACTS)
- ☐ 홍보이사 : 박문규(충남대), 김경식(청주대)
- ☐ 정보통신이사 : 홍진근(백석대)
- ☐ 국제이사 : Jacob S. Pyun(Director Bible & Talmud Edu Academy in USA)
- ☐ 각 지회

서울지회장 : 경기지회장: 경상지회장: 전라지회장 : 송은섭
충청지회장 : 이영인 동부아프리카지회장 : 이호영(우간다) 북아프리카지회장 : 허영희(튀니지) 서부아프리카지회장 : 박소현(부르키나파소) 중부아프리카지회장 : 동부아프리카지회장 :
인도차이나지회장 : 김항균(태국),이성원(라오스) 남미지회장 : 장화경(브라질)

학회연락처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 목양관 209호(백석대학교)

전화 : 041-550-2553

조교 : 이부연

아프리카미래학회 회원 가입 신청서

각 학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오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아프리카미래학회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회원구분	<input type="checkbox"/> 평생회원 <input type="checkbox"/> 일반회원
------	---

년 월 일

회원의 개인기록은 본 학회의 활동(학회지 발송, 학회업무연락, 소식지 발송 등)에 필요하오니 정확히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 명			소속 기관	기관명	
생년월일				전 공 (과목)	
E-mail			휴대전화		
주 소 및 전화번호	소 속 기 관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자택				
회원 가입 절차	1. 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회원구분 필수) 2. 입회비 및 회비 - 일반회원 : 50,000원(입회비 20,000원/ 연회비 50,000원) - 임원 : 100,000원(아프리카미래학회 임원) - 평생회원 : 1,000,000원(입회비 원/ 평생회비 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510-914111 예금주 : 장훈태(아미학) 3. 학회 연락처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1 목양관 209호 - 전화 : 041-550-2553 - 회장 : 장훈태				

아프리카미래학회 창립학술대회 논문 자료집

인 쇄 일 2021년 06월 19일

발 행 일 2021년 06월 19일

발행기관 아프리카미래학회

발 행 처 아프리카미래학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1

백석대학교 목양관 209호